

방지일 목사님 원하신 교회 하나됨 이루자

한국기독교교회장 거행... 교파 초월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국내 최고령 목회자이자 한국교회사(史)의 '산 증인'인 방지일 목사(영등포교회 원로)가 10일 오전 0시 20분께 서울 성북구 인촌로 고대안암병원에서 노환으로 향년 103세를 일기로 별세했다.

“故 광송(郭松) 방지일 목사 한국기독교교회장”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 한국교회백주년기념관 대강당에서 거행됐고 교계 지도자들이 교과를 초월해 대거 참석했다.

이날 장례식은 정영택 목사(예장통합 총회장)의 집례, 이영훈 목사(기하성 여의도순복음 총회장)의 기도, 황용대 목사(기장 총회장)의 성경봉독, 립인식 목사(예장통합 증경총회장)의 설교, 채영남 목사(예장통합 부총회장)의 약력 소개, 박중순(송실대 이사장)·서기행(예장합동 증경총회장) 목사의 조사, 박선희 목사(소망교회 원로)·주선에 교수(장신대 명예교수)의 추모사, 김요셉(한교연 전 대표회장)·임정석(영등포교회 담임) 목사·방선주 박사(유가족 대표)의 인사, 이홍정 목사(예장통합 사무총장)의 광고, 신경하 목사(기감 전 감동회장)의 축도로 진행됐다.

‘분반오라’(고전 11:1)를 제목으로 설교한 립인식 목사는 “방 목사님은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셨고, 남은 우리들에게도 본이 되는 삶을 사셨다”며 “그는 특히 100세를 넘겨 장수하시면서, 우리들에게 죽는 날까지 오직 사명의 완수를 향해 달려가야 한다는 것을 일깨워 주셨다”고 말했다.

립 목사는 또 “한국교회 130년 역사 속에서 교파를 초월한 목회자는 김선주·주기철·손양원·한경직 목사님과 같은 분들이 있고, 방지일 목사님 역시 마찬가지였다”며 “그분은 모든 것을 초월해 화평의 목회를 하신, 한국교회의 목회자라 할

수 있다. 이제 남은 우리들은 방 목사님께서 보이신 분을 따라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한국교회의 화합과 세계선교, 통일을 향해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박중순 목사는 “방지일 목사님은 제 스승이셨고, 큰 어른이셨으며, 목회의 사표였다”며 “우리들에게 바른 신학과 바른 목회의 길을 가르치셨고, 삶으로 그것을 보이셨다”고 했다. 서기행 목사도 “그의 선교와 목회의 흔적은 큰 울림으로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선희 목사는 추모사에서 “방지일 목사님은 확실한 그리스도인의 길을 가셨다. 계속적으로 자기를 부정하셨고 아무 욕심이 없는 겸손한 삶을 사셨다”고, 주선에 교수는 “영적 아버지를 천국에 보냈다. 그분은 많은 역경들 속에서도 오직 주님만을 향한 열정으로 주님의 발자취만을 옮기게 따라가셨다”고 고인을 회고했다.

유족 대표인 방선주 박사는 “아버지를 사랑해서서 마지막 가는 길을 함께하시기 위해 찾아주신 모든 성도께 감사드립니다”고 전했다.

특히 고인이 생전 시무하기도 했던 영등포교회 담임 임정석 목사는 “목사님의 호인 ‘광송’은 소나무에 앉은 빠구기를 뜻한다”면서 “늘 소나무에 앉은 빠구기처럼, 노래하듯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던 방지일 목사님의 모습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후 장례식은 참석자들의 헌화로 모두 끝났고, 장지인 춘천 선산에서 하관예배를 드렸다. 하관예배에선 김상룡 목사(영등포노회장)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요 11:25~26)를 제목으로 설교했다.

김진영 기자



목회자 자녀와 서류미비 학생의 학업을 돕기 위한 장학금을 모금하는 일일식당이 남가주목사회 주최로 13일, 14일 양일간 열렸다.

남가주 목회자들 서류미비 학생 장학금 위해 일일식당

남가주한인목사회가 미자립교회 목회자 자녀와 서류미비 학생의 장학금 마련을 위해 일일식당을 개최했다. 13일부터 14일까지 양일간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한인타운 미라크2식당에서 펼쳐진 이 행사에는 목사회 임원들과 관계자들이 나와서 후원과 기도를 부탁했다.

특히 일일식당의 시작을 알리는 데이프 커팅에는 교계 원로들도 다수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김준형 기자

남가주 교협 수석부회장에 최혁 목사 당선

공천위 만장일치로 당선 확정 ... 오는 총회에 회장 후보로 출마

공석이었던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 수석부회장에 최혁 목사(주안예교회)가 당선됐다. 지난해 11월 열린 제44회 총회에서는 사상 유례 없이 수석부회장에 출마자가 없었고 당연히 수석부회장직이 공석이 됐다. 이에 총회에서는 공천위원회에 수석부회장을 선출,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한 바 있다.

10월 13일 오후 5시 남가주교협 사무실에서 비공개로 열린 공천위원회 모임에서는 최혁 목사가 만장일치로 수석부회장에 선출됐다. 공천위원 12명 가운데 총 10명이 참석했고 2명은 참석을 위임한 상태였다. 최혁 목사는 수석부회장에 선출

되기 위해 필요한 서류 중 이력서, 목사안수증, 교회 주보를 제출하고, 발전기금 3천 달러를 기탁했다. 수석부회장 자격을 위한 서류 중에는 교단추천서가 필수이지만 최 목사는 이를 당일 제출하지 않았으며, 공천위원들은 이 서류를 추후 보완하기로 하고 표결에 들어가 만장일치 찬성을 얻었다. 제44회 총회의 결정대로, 공천위원회에서 선출된 최혁 목사는 공식적으로 남가주교협 수석부회장이



최혁 목사

됐다. 이제 오는 11월 총회에서 최혁 목사는 회장 후보로 공천되며 투표를 거쳐 회장에 오르게 된다. 그러나 전례상 수석부회장은 박수를 통해 회장에 인준받는 것이 일반적이다. 최 목사는 수석부회장 출마에 필요한 발전기금 3천 달러는 물론 회장 출마시 필요한 발전기금 5천 달러도 이미 기탁한 상태다.

최혁 목사는 호남신대 신학과를 졸업하고 풀러신학교에서 목회학 석사 과정을 마쳤다. 현재는 HIS대학교에서 Ph.D. 과정 중에 있다. 사랑의빛선교교회 담임을 거쳐 현재 주안예교회를 개척해 시무하고 있다.

김준형 기자

크리스천을 위한 **오바마케어 벌금면제 혜택**
(H.R.3590 Religious Exemption)
월\$40~\$175
● 수입과 신분에 상관 없음
● 모든 의사, 병원 사용 가능
● 한국에서도 사용 가능
CMM 기독교의료상조회
CHRISTIAN MUTUAL MED-AID
가입문의 213-700-9212
www.christianmutual.org

나라정비 나라오토덴트 유류차 전문점 SMOG CHECK
타이어 대리점 **GOODYEAR**
범퍼·도어·바디복원·무료견적·Rent Car
323.734.4881 월~금: 8am~6pm / 토: 8am~5pm 1201 S.Western Ave, LA 웨스턴과 12가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 제 45차 정기총회 소집 공고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 제 45차 정기총회 소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일시:** 2013년 11월 3일(월) 오전 10시 30분

▶ **장소:** 주안예교회(담임 최혁 목사)
19514 Rinaldi St., Northridge, CA 91326
(818)368-9883

▶ **등록비:** \$20(필수)

▶ **회비:** \$120이상(성도 1인당 1불씩)

제출서류 임후보자들은 제출서류를 2014년 10월 25일(토) 오후 5시까지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 사무실로 반드시 제출해 주십시오.

주소: The Council of Korean Churches in Southern California
981 S. Western Ave., Suite 401, Los Angeles, CA 90006

▶ **문의:** 총무 이주철사관 (408)480-3171

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후보 추천 및 신청

● **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자격**
1) 회장: 목회경력 10년 이상, 남가주 목회 5년 이상된 담임목회자 (제 15조)
2) 수석부회장: 차기 회기에 회장 자격이 있는 담임목회자 (제 16조 2항)
3) 부회장: 목회경력 5년 이상된 담임목회자 (제 15조)

● **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후보 제출 서류**
1) 이력서 2) 교단추천서 3) 목사안수증명서 4) 교회주보 5) 발전기금(캐시어체)
* 후보자 분회 발전기금
· 회장 \$5,000 · 수석부회장 \$3,000
· 부회장 \$1,000

● **교단 및 지역연합회 공천위원회 구성**
▶ 일시: 2014년 10월 27일(월) 오전 11시
▶ 장소: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

● **공천위원회 모임**
▶ 일시: 2014년 10월 28일(화) 오전 11시
▶ 장소: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 회의실
1) 공천위원: 교협 회장단 추천 6명, 이사회 추천 6명, 교단 및 지역연합회 추천 12명
2) 교단 및 지역연합회 추천 공천위원 제출서류(10월 23일까지)
① 교단장 및 지역연합회 회장 추천 공천위원 명단 2명
② 전화번호 및 이메일

■ **회장: 박효우 목사** ■ **수석부회장: 최혁 목사**
981 S. Western Ave., Suite 401, Los Angeles, CA 90006
Tel: (323) 735-3000 Fax: (323) 735-3111 E-mail: office@theckc.org www.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org

릭 워렌이 40년간 사역할 수 있었던 비결

“목적 · 성실 · 겸손 · 관용 위에 교회 세워야”

최근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익스포넨셜 컨퍼런스’(Exponential Conference)의 강사로 나선 릭 워렌 목사(새들백교회)는 “교회 개척자들은 사역을 지속하기 위해서 특정한 가이드라인을 따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워렌 목사는 컨퍼런스 참석자들에게 “통계에 의하면, 교회 개척자들의 절반 정도가 무언가를 철저히 시작하지 않을 경우에 사역을 지속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역을 쌓아올릴지 매우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40년 동안 사역을 통해 얻은 나의 경험을 활용하라”고 했다.

그는 “어떤 이는 금, 은 또는 보석으로 사역을 쌓아올릴 수 있다. 또 다른 이는 나무나 지푸라기 등으로 쌓아올릴 수 있다. 불로 시험을 받을 때에 여러분이 쌓아올린 것이 그대로 남아 있다면, 여러분은 상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여러분의 사역 성공은 규모나 속도, 혹은 대형교회 순위와도 상관없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것들로 여러분을 판단하지 않으신다. 왜냐하면 이것은 인간이 만든 기준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워렌 목사는 자신이 어떻게 사역

을 지속해 올 수 있었는지 설명하면서 “많은 교회 개척자들이 최신 트렌드에 사로잡혀 있다. 그러나 ‘현재 인기 있는 트렌드는 무엇인가?’ 고민하며 단순히 많은 이들을 교회로 데려오려는 것이 아니라, 오래 지속될 수 있는 전략을 심는 데 사역의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자신의 사역적 성공의 많은 부분이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이라면서도, “‘더 열심히’가 아닌 ‘더 지혜롭게’ 사역을 했기 때문에 이를 오래 지속할 수 있었다”고 했다.

또한 “일부 목회자들이 나보다 더 많이 기도를 하는데도, 그들의 교회가 잘 성장하지 않고 있다. 나도 열심히 일을 하지만, 나보다 더 열심히 일하는 교회들을 알고 있다. 헌신은 교회를 자라게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여러분은 최고 수준의 성경 학교에 들어가서 신학을 공부하기 위해, 많은 돈을 버는 데 시간을 보낼 수 있다. 그러나 여러분이 지속적으로 기술을 연마하지 않는다면, 대학에 들어가지 않은 이들과 같이 무더질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사역과 관련해 다른 교회 모델들을 전혀 배기지 않았다



릭 워렌 목사

고 자신있게 말할 수는 없지만, 사역이 지금까지 계속 성장하고 있다는 사실에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워렌 목사는 마지막으로 교회 개척자들이 그 어떤 것보다 ‘순전한 마음’과 ‘목표와 과정에 있어서의 깨끗함’을 유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만약 여러분의 교회가 오래 지속되길 원한다면, 여러분은 목적·성실·겸손·관용 위에 교회를 세워야 하며, 사람이나 개성 또는 스타일에 초점을 맞춰서는 안 된다. 지속되는 단 한 가지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이다”고 했다.

손현정 기자

연합감리교 동성결혼 축복한 36명 목회자에 “징계 안해”

연합감리교(UMC) 펜실베이니아 연회가 교단법을 깨고 동성결혼식을 축복한 36명 목회자들을 징계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교단 측은 지난해 11월 지역 내 필라델피아 아퀴스트리트처치에서 열린 두 남성 커플의 결혼식을 축복한 36명의 목회자들에 대해 제기된 소송에 대해서 재판을 열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펜실베이니아 연회의 폐기 존슨 감독은 이들 목회자들에 대한 징계는 없을 것이며, 자신들이 UMC의 교단법을 어기는 행동을 했다는 점을 시인하게 하는 것으로 고소 건을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존슨 감독은 “이들이 목회자로서의 사랑으로 이 같은 일을 했다는

점에는 동감하지만 교단 규례집을 무시하고 따르지 않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고 말했다.

이어 존슨 감독은 앞으로 같은 일이 재발할 시에는 이와 같은 가벼운 조치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앞으로 내가 처리하는 구역 내에서 목회자가 동성결혼식을 주례하는 일이 또 발생하게 되고 이에 대한 소송이 제기된다면 그 때는 지체 없이 재판에 회부시킬 것이고 이로 인해 중대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이들 36명의 목회자들은 동성결혼식을 주례했다가 파면당한 프랭크 새퍼 목사를 지지하는 뜻에서 동성커플을 결혼식을 공동으로 축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독일 출신으로 펜실베이니아 주

에서 목회해 온 새퍼 목사는 2007년에 동성애자인 장남이 동성 연인과 결혼식을 올릴 때 이를 집례한 것이 문제가 되어 작년 12월 파면을 당했다가 지난 6월 복권됐다. 교단 북동부 지역 항고위원회는 당시 새퍼 목사 항고를 받아들여 그의 복권을 선언했을 뿐 아니라, 앞으로도 언제든지 새퍼 목사가 원할 때 동성결혼식을 주례할 수 있다고도 밝혔다.

앞서 지역 사법위는 새퍼 목사에게 30일간 목회자 자격을 박탈한다며, 다시 한번 동성결혼식을 집례하거나 축복할 시에는 목회자 자격을 영영 상실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새퍼 목사는 동성결혼식을 집례할 권리를 고집했고, 이에 따라 파면이 결정되었던 것이었다.

손현정 기자

에볼라 사태 심각해도

두려움 이기고 도와야

감염 후 회복된 브랜틀리 선교사 “구호 촉구”

라이베리아에서 의료사역 중 에볼라 바이러스에 감염되었다가 회복된 미국 선교사가 “서아프리카의 에볼라 사태는 생각 이상으로 심각하지만 두려워하지 말고 계속 도움을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미국 국제구호단체 사마리아인의지갑(Samaritan's Purse) 소속의 켄트 브랜틀리(Kent Brantly) 선교사는 라이베리아에서 에볼라 환자들을 돌보다가 지난 8월 초 감염 증세를 보여 미국으로 이송된 후 2주간의 격리치료를 받고 극적으로 회복됐다.

그는 최근 텍사스 주 에빌링기독교대학교(ACU)에 연사로 초청되어 서아프리카 현지에서 구호를 지속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브랜틀리 선교사는 먼저 8일 라이베리아 출신의 에볼라 환자인 토마스 에릭 던컨이 델러스에서 사망한 사건을 언급하며 “그와 그의 가족에게 애도를 표한다”고 밝혔으며, “내가 아직 살아있음에 놀라움을 느낀다. 델러스에서의 이 사건을 둘러싸고 많은 이들이 공포를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브랜틀리 선교사는 “모두가 생각하듯 에볼라는 심각한 질병이다. 특히 감염자들에게는 공포 그 자체이다. 모든 환자들은 스스로를 감시해야 하고 보건당국과 협력해야 하며, 이러한 모든 것이 그들에게는 힘든 일이다”고 말했다.

그러나 브랜틀리 선교사는 “하지만 건강한 우리는 이를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면서, “두려움이 있지만 서아프리카를 돕는 일을 계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브랜틀리 선교사는 자신을 포함해 의료사역을 펼치다 에볼라에 감염되어 귀국한 선교사들에 대해 일부에서 비판이 쏟아졌던 일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내가 미국으로 돌아오기를 바라지 않았던 사람들도 있고 나에 대해 부

정적으로 말했던 사람들도 있다”며, “그러나 이들이 나라는 사람을 개인적으로 알았다면 그런 말은 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브랜틀리 선교사는 “에볼라 사태에 대해서 많은 언론 보도들을 여러분은 접하고 있다. 서아프리카의 상황은 이런 보도들이 말하는 것 이상으로 심각하다. 그렇기에 우리의 관심과 노력이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일에 집중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 정도로 충분하다. 이제 우리가 구할 수 있는 생명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다. 하나님께서는 내 생명을 구해 주셨고, 또 놀라운 사람들과 놀라운 상황들을 통해 사람들을 구하고 계신다”고 브랜틀리 선교사는 힘주어 말했다.

앞서 브랜틀리 선교사는 치료 중에 자신을 위해 기도해 주는 교인들에게 편지를 써서 감사를 표하며, “에볼라에 감염된 것을 알았을 때 나를 찾아온 것은 두려움이 아닌 평안이었다”고 간증하기도 했다. “양성 반응이 나왔던 그 순간 내가 느꼈던 매우 깊은 평안함을 아직 기억한다. 그것은 모든 이해를 넘어서는 것이었다. 하나님께서는 지난 오랜 세월 동안 내게 주셨던 가르침을 떠오르게 하셨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주신다는 가르침이었다”고 그는 전했다.

한편, 12일 유엔의 데이비드 나바로 에볼라 특사는 3개월 안에 바이러스가 통제될 수 있다는 전망을 밝혔다. 그는 에볼라 감염 건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있지만, 이 병에 대한 지역 사회의 높아진 각성이 바이러스가 더 이상 퍼지지 않도록 하는데 커다란 도움을 줄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손현정 기자


새 빛 한 의 원
 Saevit Acupuncture clinic

323-735-6365 올림픽+하바드
 3130 W. Olympic Blvd, Suit 380 Los Angeles, CA 90006

한방내과, 한방성형 & 통증클리닉
 늘환자의 고통을 함께 나누며 환자의 몸이 지니고 있는
 “자연치유력”을 살려내는 새빛이 되겠습니다.

수술없는 한방 성형
 처진 턱선을 올려 젊음 유지
 아름다운 여인이 되어보세요.

한방감기 특별처방!!
 (5일분-\$35)

약력 북경중의약대학졸업 전 한의과대학 교수역임(삼라한의원) W

교통사고 · 각종보험 · 여행자보험



천하인 다 둘러보고 오세요~
당신의 마지막 카드
 13년 경력의 자동차 판매 전문가, 찰리 정

찰리 정 (FLEET MANAGER) | 213-276-8959 | email: usajyk@gmail.com


HYUNDAI
 Puente Hills Hyundai

서건오 목사 위임 감사예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섬기시는 교회와 가정에 충만하길 빕니다.

금번 나성서부교회에서는 서건오 담임목사 위임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새로운 사명의 길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2014년 10월 19일 (주일) 오후 4시

하나님의 기쁨
나성서부교회

1218 S. Fairfax Ave, LA CA 90019 전화)323-939-7323



동아시아 평화 문제의 답을 본회퍼에게서 찾다

제29차 성결포럼에서 유석성 총장 발제

동아시아 평화 문제에 디트리히 본회퍼의 사상은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 제29차 성결포럼에서 유석성 총장(서울신대)은 본회퍼의 평화 사상이 무엇인지 고찰한 후 그 사상이 동아시아 평화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 발표했다. 유 총장은 서울신대를 졸업하고 독일 튀빙엔대학교에서 신학박사 학위를 받은 기독교 윤리학자로, 사회 정의나 평화 문제를 비롯해 본회퍼와 관련된 다수의 책을 저술했다.

유 총장은 10월 13일 미성대학교에서 열린 성결포럼에서 “본회퍼의 평화사상과 동아시아의 평화”라는 제목으로 발제했다. 유 총장에 따르면, 본회퍼는 기독교 평화운동의 선구자다. 유 총장은 본회퍼로부터 기독교의 평화가 무엇인지부터 설명해 들어갔다. 본회퍼의 평화주의의 핵심은 보복금지, 비폭력, 원수사랑 등으로 이런 요소는 예수의 산상수훈에 기초하고 있다. 그의 평화사상은 세상에서 흔히 말하는 평화와는 조금 다른, 아니 반대되는 개념에 가깝다. 세속적 평화주의는 정치적 계약, 제도, 군비확장 등의 수단을 사용한다. 즉, 전쟁이나 갈등이 일어나지 않는 상황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본회퍼에게 이것은 ‘평화’가 아닌 ‘안보’다. 이 안보는 상호 간에 불신을 초래하면서 자기를 지키려는 것이다. 그러나 평화는 신앙과 순종 안에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계명에 맡기는 것이기에 평화와 안보는 반대 개념에 해당한다.

또 그에게 있어서 평화는 진리와 정의가 실현되는 상태다. 유 총장은 “소극적 개념에서는 전쟁이 없는 상태가 평화이지만, 적극적 개념에서는 정의의 현존이 평화다”라고 주장했다. 본회퍼의 평화사상은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정의를 구현하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그는 평화를 하나님의 계명이라면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의 현존이며, 십자가에 근거한 제자의 길로 해석했다. 또 그리스도께서 타자를 위해 오셨듯, 교회도 타자를 위한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부분에서 유 총장은 “1930년대 평화주의를 주장했던 본회퍼가 1940년대에 히틀러 암살 계획을 세운 것은 평화주의를 포기



유석성 총장이 본회퍼와 동아시아의 평화 문제를 놓고 발제하고 있다.

한 것이 아닌, 신의 계명에 대한 구체적 실천이었다”고 해석했다. “본회퍼는, 계명은 구체적 실천을 요구한다고 보았기 때문에 피 흘리는 일을 중지하기 위해서 미친 운전수인 히틀러를 제거해야 한다고 봤다”는 것이다.

그의 이런 평화사상은 한중일로 구성된 동아시아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 현재 동아시아의 평화를 위협하는 요소는 북한 핵 문제, 한일 독도 문제, 일본의 역사 왜곡과 신군국주의, 중국의 동북공정 등 다양하다. 유 총장은 동북아가 이러한 평화를 향한 위협을 극복하기 위해 본회퍼로부터 배울 수 있는 점을 크게 5가지로 정리했다.

먼저는 역사적 잘못을 인식하고 참회하는 것이다. 본회퍼가 죄의 인식과 고백을 강조한 것처럼 먼저는 과거의 잘못을 깨닫고 반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유 총장은 “일본은 침략과 학살에 대해 반성과 사죄와 참회를 해야 한다. 그들은 역사적 과오에 대해 형식적 사과만 하고 오히려 자기들의 잘못을 은폐, 왜곡, 미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둘째, 세 나라가 전쟁을 반대하고 비폭력적 방법으로 평화를 실천하는 것이다. 유 총장은 “미국의 이라크 전쟁에 일본과 한국이 파병하는 문제를 본회퍼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하여야 할까”라고 물었다.

셋째, 본회퍼가 평화를 정의의 구현이라 본 것처럼 동북아도 그 지역에 정의를 구현하는 일을 해야 한다. 유 총장은 “오늘날 세계가 당면한 테러와 전쟁의 극복 문제는 빈곤의 문제와 사회정의문제를 해결하

지 않고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넷째, 공동체성 회복이다. 본회퍼는 평화를 실천하기 위해 공동체성을 강조했다. 그는 그리스도를 “공동체(교회)로 존재하는 그리스도”라고 보았다. 동아시아 삼국은 평화를 위한 공동체 의식을 가져야 한다.

다섯째, 한중일에 이미 존재하는 평화사상을 원용할 수 있어야 한다. 유가에서는 덕치(德治), 도가에서는 비전론(非戰論), 묵가에서는 반전론(反戰論), 법가에서는 법치(法治), 한국 불가에서는 원효의 화쟁사상(和靜思想) 등이 있다. 이런 공통분모를 찾아내어 세 나라가 공존하며 상생할 수 있는 국제 질서를 확립하자는 주장이다.

유 총장은 “동아시아의 평화를 위협하는 요소는 자국 중심적 국수주의적 민족주의”라고 규정하고 일본의 우경화된 국가주의, 중국의 팽창주의, 북한의 핵을 꼽았다. 유 총장은 “평화를 추구했던 본회퍼로부터 큰 교훈을 받을 수 있다”면서 “본회퍼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책임 있는 기독교인의 삶의 모습과 교회의 참 모습을 가르쳐 주었고 사회참여신학의 선구자로서 정의와 평화와 사랑을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 주었다”고 강의를 맺었다.

한편, 2003년 처음 시작된 성결포럼은 지난 12년 동안, 여성 목사 안수, 기독교와 타종교의 대화, 이민교회의 분열과 갈등, 유대복음, 북한선교의 전망, 2040세대 전도, 직장선교와 군선교 등 시기에 맞게 다양한 주제를 뽑아 포럼을 열어 왔다.

김준형 기자

미성대 ATS 준회원 가입 “하나님이 하신 일”

美 주류 신학교와 어깨 나란히

미성대학교(America Evangelical University, 구 미주성결대)가 ATS 가입을 기념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림과 동시에 교회와 성도들의 후원을 요청하는 후원의 밤을 12일 개최했다. 이 행사는 학교가 속한 교단인 미주성결교회의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해 큰 축제 분위기로 치러졌다.

2001년 1월 미주성결교회 교단신학교로 문을 연 미성대는 지난 2011년 류종길 총장이 취임한 이래 가히 초고속 성장을 이루었다. 2012년 ABHE(Association for Biblical Higher Education)에 준회원으로 가입됐고 2013년에는 캘리포니아 주교육국으로부터 ESL 과정을 비롯해 대다수 학위에 대한 허가를 받았다. 2013년 9월 ATS(Association of Theological Schools)에 회원으로 신청했고 2014년 6월 준회원으로 가입됐다. 학교로서 가장 중요한 학위 인가와 관련해서 ABHE는 2014년 11월 정회원 심사를 받게 되며 ATS는 2016년 봄경 정회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미성대학교는 주정부로부터 TESOL, RN, BSN 등의 과정에 대한 허가도 받고 있다.

류종길 총장은 취임 당시 기도회원 10만명, 후원이사 200명을 모집하겠다는 비전을 세웠고 지금도 추진 중에 있다. 그리고 신학을 넘어서 사회에도 기독교적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지도자를 양성하겠다는 비전 아래, 간호대학, 법학대학, 경영대학 설립도 준비하며 기도 중에 있다.

이날은 특별히, 대학이 속한 미주성결교회의 모 교단이라 할 수 있는 한국 기독교대한성결교회의 직영신학교인 서울신학대학교의 유



류종길 총장

석성 총장이 설교했다. 유 총장은 ATS 가입과 관련해 “오늘은 역사적 전환점이자 새로운 발전과 도약의 출발점”이라면서 “류종길 총장, 조종곤 이사장과 후원자들의 기도와 후원에 힘입어 이뤄진 일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리다”고 축하했다. 그는 “한국에서는 서울신대가, 미주에서는 미성대가 힘을 합쳐 세계 복음화에 헌신하자”고 강조했다.

이날은 OMS 한국대표인 태수진 선교사, 언더우드대학교의 리차드 윤 총장 등 미성대와 협력관계에 있는 단체에서도 축하가 이어졌고 교단 내에서도 총회장 김병곤 목사, 부총회장 최대현 장로, 전 총회장 허경삼 목사, 박수복 목사, 김광렬 목사 등이 순서를 맡았다.

류종길 총장은 “신실한 분들과 함께 이 위대한 하나님의 학교를 섬길 수 있음이 큰 축복”이라면서 “지금까지 이런 성장을 바탕으로 미래를 굳건히 다질 소중한 기간이 바로 지금”이라고 강조했다.

남가주 내의 풀러신학교, 탈봇신학교, 아주사대학교는 물론 미 전역 주류 신학교들의 학위를 인가하는 ATS는 한인신학교가 넘기 어려운 벽처럼 여겨져 왔지만 최근 월드미션대학교가 한인신학교 최초로 ATS 정회원이 됐으며 현재 미성대와 미주장신대, 그레이스미션대 등이 준회원 단계에 있다.

김준형 기자



미성대학교가 ATS 준회원에 가입함을 감사하며 후원을 요청하는 후원의 밤 행사를 열었다.

보험료를 대폭 낮추었습니다!

가장 싼 자동차 보험 알선

음주운전자들을 위한 특별 자동차 보험

24hr 한국어 서비스

굿모닝 보험 213.761.9990 KEVIN YOO

“친절하게 웃음으로 생애에 드립니다. 부담없이 연락주세요.”

각종 사업체, 화재보험 및 모든 보험문의 환영

믿을 수 있는 농협 한삼인

창고대 방출

농협 고려인삼 한삼인 서부총판

1-866-902-8282 www.korginseng.com

LA 지부: 3130 W Olympic Blvd #120 LA, CA 90006 (동행/아미노 - 서부인삼방출) T.323.737.8888

Fullerton 지부: 1701 W Orangefhorpe Ave, Fullerton, CA 92833 T.213.453.6624 (아미노방출/아미노)

100%홍삼농축액

100g 소비자가격	\$90	240g 소비자가격	\$185
2개 구입시 \$150		2개 구입시 \$370	
3개 구입시 \$180		3개 구입시 \$555	
4개 구입시 \$230			

홍삼순액

30포 \$120	
60포 \$180	
90포 \$255	
120포 \$320	

LOS ANGELES ORT COLLEGE

NON-PROFIT ORGANIZATION ACCREDITED BY ACCET

www.LAORT.edu

◆ 한국인 상담

그레이스 (Grace)

직통: 213.703.6863

Office: 323.966.5444

고소득 직업을 원하십니까? 우리가 도와 드리겠습니다.

시민권자, 영주권자, 저소득층 정부전액 보조금 지급(유자격자) - ESL Program Only -

상담필수 8:30AM~7:00PM

- 시민권 신청
- 저소득층 메디칼 신청
- FREE Food Stamp
- HEAP(Utility Bill Payment)
- Social Service
- WIA, Childcare, Transportation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드립니다.

• 방문비자(B1, B2)를 학생비자 F-1으로 변경 가능

유학생은 ORT학교 졸업 후 워크퍼밋과 소셜NQ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 메디칼 오피스 매니지먼트 학사취득 ... Medical Office management (AA Degree)
- 건축설계 ... Computer Aided Design & Drafting
- 의사보조 ... Medical Assistant
- 약사보조 ... Pharmacy Technician
- 정부 전액보조금지급(유자격자) 학자금 보조 및 융자
- 취업추천 및 직업소개(전문 직업, 높은 취업률 보장)
- 무료 버스표, ORT 학교 장학제도 보유
- ESL ... English as a 2nd Language (ESL) 1~6단계, 회화반
- 비즈니스 매니지먼트 학사취득 ... Business Management (AA Degree)
- 아카운팅 AAS 학사취득 ... Accounting (AA Degree)
- 그래픽, 포토샵 ... Computer Graphic & Desktop Publishing (Adobe Illustrator)
- 편리한 수업시간 대 : 아침반, 저녁반
- 유학생을 위한 1-20 발급 (미민국 SEVIS 인정 대학, 소셜 넘버가능)
- 교수진 : 전원 남녀 미국인교수

Los Angeles : 6435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48 (Wilshire+Lajolla)

Van Nuys : 14519 W. Sylvan Street, Van Nuys, CA 91411 Tel. 818.382.6000

New York : Forest Hills

Chicago : Skokie

오픈뱅크 올해도 수익 10% 지역사회에 환원



민 김 회장
고 있는 “청지기 프로그램”이 올해도 수혜자를 접수하고 있다.

오픈뱅크는 은행 수익의 10%를 사회에 환원한다는 목표로 오픈스튜어드십 재단(Open Stewardship Foundation)을 통해 매년 이 행사를 하고 있으며 지난 제3차 때에는 73개 비영리단체에 무려 37만4200달러의 지원금을 전달한 바 있다. 올해 신청서 마감은 11월 28일이며 오픈뱅크 오피스가 있는 1000 Wilshire Blvd. #500 Los Angeles, CA90017로 우편 혹은 직접 제출

해야 한다. 각종 문의는 전화 213-593-4885로 하면 된다.

신청자들은 각종 심사를 거친 후 2015년 2월 27일 최종 결과를 통보 받게 된다. 신청서는 오픈뱅크 웹사이트(www.myopenbank.com/wp-content/uploads/2014/09/Open-Stewardship-Application-2014.pdf)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김나래 기자

평화의 소녀상에 담긴 아픔과 비극 노래로 승화

25일 토요일 오후 7시 제3회 브니엘 코랄 정기연주회가 충현선교교회에서 열린다. 이번 음악회는 평화의 소녀상을 기념하고 민족의 아픈 과거사를 바로잡자는 취지로 열려 더욱 뜻깊다. 이를 위해 민중기목사가 작사하고 이호준 작곡가가 작곡한 “봉선화 고운 꽃잎”이란 곡이 무대에 초연되고 포레의 레퀴엠

전곡이 연주된다.

브니엘 코랄의 전선홍 팀장은 “한국을 비롯한 동남아 국가들의 소녀들이 당한 고난과 인권 말살, 침략자들의 잔혹함을 세상에 널리 알려 다시는 이런 비극의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각성해야 한다”면서 “나아가 아픔 당하신 분들을 조금이나마 위로하고 그리스도의 사랑

으로 진정한 용서와 화해를 이루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민중기 목사는 “이 행사를 통해 어른은 물론 어린이들, 영어권에게까지 이 아픔을 나누고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 동일한 범죄가 일어나지 않는 미래가 펼쳐지길 소망한다”고 전했다.

김나래 기자

〈조선인보다 조선을 더 사랑한 사람들〉뮤지컬



뮤지컬 선교단 FIT의 공연 장면

뮤지컬 선교단 FIT(Free in the Truth)가 10일부터 24일까지 남가주 전역에서 4회에 걸쳐 공연을 펼치고 있다. 지난 11년 동안 남가주에서 뮤지컬로 선교해 온 FIT는 120년 전 한국에 복음을 전해 준 제임스 홀, 로제타 홀 선교사 부부의 삶을 조명하는 ‘조선인보다 조선을 더 사랑한 사람들’이란 작품을 공연한다. 이 공연은 무료이다. 이미 지

난 10일 나성한미교회에서 공연을 마친 바 있으며 아래는 향후 일정이다.

10/17(금) 8pm - 선한청지기교회 (2701 S. Woodgate dr. West Corona)
10/22(수) 8pm - 온누리교회 (10000 Foothill Bl. Lake View Terrace)
10/24(금) 8pm - OC제일장로교회 (8500 Bolsa Ave. Westminster)

김나래 기자



미주비전교회 여자 인카운터에서 은혜로운 간증이 넘쳐났다.

미주비전교회 인카운터 “하나님 사랑으로 거듭나”

지난 10월 10일부터 12일까지 미주비전교회(담임 이서 목사)가 여자 인카운터 제22기를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나성순복음국제금식기도원에서 개최했다.

이 행사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

고 주님의 제자로 거듭나는 변화를 추구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다.

이번 여자 인카운터에는 남편의 출장 차 미국을 방문했던 한 불교신자 여성이 참석했다가 말씀으로 거듭나는 경험을 하는 등 은혜로운 간증이 넘쳐났다.

한편, 제22기 남자 인카운터는 10월 31일부터 11월 2일까지로 계획돼 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길 원하는 모든 이들을 미주비전교회에 초대하고 있다.

문의) 714-999-9900

문소현 기자

신앙 뜨겁던 80-90년대 기억나세요?

독거노인들, 양로원 선교를 위한 8090 찬양의 밤이 19일 오후 4시 LA비전교회(520 S. La Fayette Park Pl. Los Angeles)에서 열린다.

이 행사는 한국교회가 한창 신앙이 뜨겁던 80년대, 90년대 불렀던

찬양으로 이뤄지는 음악회이며 수익금은 노인 선교에 사용된다.

이 행사를 여는 8090 팀은 “남가주 지역의 작은 교회를 찾아가서 그 교회의 분위기와 필요에 따라 맞춤형 찬양집회를 인도해 드리고 있다”면서 “교회에서 이 행사를 전

도의 기회, 특히 80-90년대에 교회를 다니다가 떠난 성도들을 전도하는 데에 사용한다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한국어, 영어 등 각 교회의 필요에 따라 찬양하는 언어도 자유롭다.

김나래 기자

얼바인 온누리교회 세계관 학교



얼바인 온누리교회에서 기독교 세계관 학교가 열리고 있다.

기독교 세계관을 정립해 세상과 소통하고 세상에 영향력을 끼칠 개인과 교회의 역량을 키우기 위한 세계관 학교가 얼바인 온누리교회에서 개강했다.

10월 5일부터 11월 16일까지 매주 일마다 계속되는 이 세계관 학교에서는 김재영 교수, 김승호 교수, 한영호 목사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초청해 <천국만이 내 집은 아닙니다>, <알기 쉬운 과학과 신앙 이야기>, <생명과학이 열어가 는 미래,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교육

은 불평등을 부추기는가 해소하는가?>, <중독과 해독>, <성공과 부, 우상과 영광> 등의 강의가 이뤄진다.

강의 후에는 이에 대한 질문과 답이 오고 가며 참석자들이 조별로 토론하고 토론의 내용을 나누는 시간도 주어진다.

얼바인 온누리교회 측은 이 프로그램을 느헤미야 프로젝트로 명명하고 교회가 세상의 무너진 곳을 보수하는 전문사역자를 배출하길 기대하고 있다.

문소현 기자

기독일보

편집고문 : 박희민, 장재호, 이원상, 박기호, 방지각, 김준연, 고승희, 민중기, 정우성, 김혜성
발행인 : 이인규 **편집국장** : 맹 토마스
고문번호사 : 정찬용
지사망 : 로스앤젤레스, 뉴욕, 샌프란시스코, 워싱턴DC, 시카고, 애크랜다, 시애틀

대표전화 : (213) 739-0403 / **E-mail** : chdailya@gmail.com
Payable to order : Christianity Daily
주소 : 621 S. Virgil Ave, Suite 260 Los Angeles, CA 90005



건강보험 전문회사 DK 건강보험(구 하나건강보험)이

65세 이상의 **메디케어 건강보험**과 **오바마케어 건강보험**을 서비스 하고 있습니다
(모든 건강 보험 플랜을 취급합니다)



213-500-4563
ID:DKHEALTH

오바마 건강보험 (Covered CA)

커버드 캘리포니아 건강 보험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에이전트로부터 지속적인 서비스를 받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신 분은 저희 DK 건강보험에 연락 주십시오, 저희가 도와 드리겠습니다. 카카오 계정을 통한 지속적인 서비스로 최고의 고객만족을 제공 합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의 보험을 가지고 있습니까? 현재 가지고 있는 건강보험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까? 현재의 소득이 10% 이상 증가 하거나 10% 이하 보험료가 줄었습니까? 가족구성원의 수가 변화하였습니까? 현재의 건강보험을 2015년에도 유지 하고 싶습니까? 저희 DK 건강보험에 연락 주세요, 혹은 카카오계정을 이용 하시면 더욱 편리 합니다.

1. 손님의 요구에 따라 각 카운티와 계약된 모든 건강보험을 보험료와 보험혜택을 꼼꼼히 비교 분석하여 드립니다.
2. 정부의 건강 보험 플랜이기 때문에 메디칼 그리고 커버드 캘리포니아 플랜과의 소득에 따른 연관성이 있습니다. 플랜 가입후 메디칼에 대한 고객 서비스 그리고 각 헬스 플랜에 따른 고객 서비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처방약이 보장되는지 그리고 의료 외 혜택에 대한 전문적인 서비스를 통해 항상 여러분곁에 있습니다. 카카오 계정 DKHEALTH 나 213-500-4563 을 기억 하십시오.)

메디칼 메디케어 특별 필요 플랜도 도와드립니다

1. 메디케어만 가지고 있는 분들의 건강보험을 분석하고 메디케어 수혜자에게 가장 맞는 건강 보험을 비교 분석하여 드립니다. (처방약 비용 분석, 처방약 보장 분석, 초과 혜택 분석, 안경테 렌즈, 보청기, 헬스클럽등의 베니핏이 최대한 보장되는 플랜을 비교 분석하여 드립니다.)
2. 당뇨질환이나 심장질환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에 대한 메디케어 건강 보험
3. 신장투석을 하고 있습니까? 신장투석을 하거나 신장이식을 하신 분들을 위한 건강 보험 등을 분석 검토하여 드리겠습니다.

메디칼과 메디케어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분들의 건강보험

메디칼과 메디케어의 통합에 따른 여러가지 건강 보험중에서 고객에게 가장 맞는 건강 보험을 고객의 요구에 따라 맞춤 서비스를 하여 드리겠습니다. DK 건강보험은 메디케어의 신청 메디칼의 신청 엑스트라와 헬프 플랜의 신청 그리고 메디케어 세이빙스 프로그램의 신청을 도와 드리겠습니다. 카카오 톡 서비스를(카카오 계정 DKHEALTH 혹은 213-500-4563을 저장하세요) 제공 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카카오 톡을 통해 건강보험의 궁금한 점을 질문하시면 최대한 빠른 시간에 서비스를 해드립니다. 신분이나 세금을 내신 기록에 따른 보험료가 달라 질 수 있지만 최대한 저렴하며 보험가입자의 혜택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0세부터 65세 까지의 모든 건강 보험을 도와드립니다.
65세 이상의 건강보험도 도와드립니다.

DK HEALTH INSURANCE, INC.
(구, 하나건강보험)



DKHIS.Inc
LIC #:0146629

문의
전화

1-855-386-3088, 1-213-500-4563

LA 본사 주소: 520 S VIRGIL AVE #204 *샌 디에고, 오렌지 카운티, 다이아몬드 바에도 오피스가 있습니다.

말씀순종의 신앙을

신명기 8:1-10



하나님 나라의 영적 공동체는 인격적인 결합으로 그리스도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가를 배우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영적 가치와 체질과 신앙이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 모두 배울 수 있습니다.

1. 하나님은 자력을 갖추기를 원하심

1절과 2절을 분석해 보면 양면성을 하나님께서 제시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1절은 소망적인 비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많은 것을 쟁기고 누리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지켜 행해야 합니다. 참된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모든 명령을 다 지켜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따라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살 수 있고 번성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의 땅에 들어가 평안하게 살 수 있습니다. 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문제와 필요를 채우시며 공급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말씀이 지시하는 내용에 따라 순종하고 따를 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면 모든 조건을 채워 주시는 것입니다.

2. 낮추시고 뵈으시고 시험하심

40년의 세월은 사람의 일평생의 절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합격된 믿음을 소유하도록 하기 위해 40년 동안 광야 길을 끌고 다니십니다. 직행하면 애굽에서 시나이 반도를 거쳐 빨리 걸으면 가나안 땅까지 10일에서 천천히는 12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로 가도록 하시지 않고 이 나라, 저 나라를 다니며 남의 영토를 짓밟고 전쟁까지 하게 하시며 여러 곳으로 이끄셨습니다. 이 기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를 한 400년의 1/10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에 이대로는 하나님 중심의 성숙한 신앙인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 합격될 때까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시험과 연단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걷게 하시고 낮추셨습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놀라서 땅바닥에 엎드려지게 하셨습니다. 기병과 마차까지 동원하여 불안한 위기 직전으로 몰아 넣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불꽃 벽으로 모세의 백성들을 지키심으로 더 이상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바람을 일으켜 홍해 바다 한가운데 길을 만드셨고 사우디아라비아에 상륙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애굽 군대는 물을 합치심으로 말과 군대 모두가 산재로 몰살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습을 보고 승리의 쾌감을 느끼며 의기양양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여러 기적을 통해 감사

와 겸손과 순종보다는 우월감과 교만의 오류에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신자들 중에서도 기도할 때 기도의 응답이 오면 자기가 무엇을 얻어내고 고침 받고 한 것처럼 교만해지고 어떤 댓가를 요구하며 사기꾼의 근성을 보이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하세와 교만으로 들떠 있는 백성들을 낮추셨고(2절, 3절) 하세와 교만을 버리고 계속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르는 백성을 삼기 위해 낮추시고 뵈으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하여 우리를 중에서도 직분에 맞는 헌신과 섬김의 모습이 없이 하세와 교만에 빠져 있을 때 우리를 낮추시고 뵈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한 그들을 계속하여 시험하십니다. 시험은 2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테스트(test)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시험입니다. 신자들의 영적 수준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합격점에 오르게 하기 위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수준에까지 겸손한 믿음으로 성숙하게 되도록 하기위해서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를 확인하시기 위하여 시험하십니다. 두 번째로 템테이션(temptation)입니다. 이는 마귀가 우리의 영혼을 실족시켜 지옥에 떨어뜨리기 위해 우리를 유혹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 본문에서 말씀하는 시험은 테스트입니다.

3. 말씀절대주의 신앙이 되라

누가복음 5장 2절 이하를 보면 많은 무리들이 해변에 모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배를 빌리시고 해변에서 설교를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설교를 듣기 위해 모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들은 말씀들을 확인시켜 주실 필요를 느끼시고 한낮(11-12시쯤)이 되어 가는데도 불구하고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하고 말씀하십니다. 물이 맑은 갈릴리 바다에 한낮은 햇빛이 그대로 투과되어 바닥이 보이고 고기들 또한 모든 것이 다 보이기 때문에 낮에는 도망가버립니다. 그래서 갈릴리 바다에서는 언제나 고기를 밤에 잡았습니다. 베드로는 고기를 잡는 전문 어부였습니다. 특히 낮에 그물을 내리는 일은 어리석은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말씀을 들으며 그 심령이 불들리기 시작했고 사로잡혀 말씀이 믿어지는 믿음으로 순종하여 그물을 내립니다. 그래서 그의 전문 지식으로도 밤새 헛수고를 했지마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자 한 낮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두 배에 가득 채우게 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합니다. 말씀이 실제 능력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동업자 야고보와 요한에게까지 오라 하여 배에 가득 채우게 되었고 이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을 말씀을 선포하는 제자로 삼기 위

해 나타내신 말씀권능의 결과였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말씀을 집중하여 들었던 사람들이 말씀을 입체적으로 믿도록 보여주신 예수님의 입체적인 설교였습니다.

4. 만나로 먹여주시는 하나님

굶으면 육신적으로는 고달프겠으나 영적으로는 한단계 성숙시키는 계기를 삼아야 합니다. 옥수동에서 개척할 당시에도 밥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금식시키는가 보다 하고 금식하면 하나님께서 영적 능력을 주시고 그런 후에는 또 다른 손길을 통하여 하나님의 관심의 표현으로 누군가를 통하여 먹이시는 손길을 만나곤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알뜰히도 눈동자처럼 보살피시는구나 하고 감동되어 눈물을 흘리기도 하면서 감사드리곤 하였습니다.

인간은 영과 육의 합성체입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는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리며 성령계 순종하는 믿음이 가장 잘 믿는 믿음이고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순종하는 믿음, 겸손하고 말씀을 실천하는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먹여주시고 살리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만나로 먹이시고 살리시는 것입니다. 인생은 육신을 목적으로 살면 안됩니다. 영으로 살고 영적인 삶을 삶으로 천국을 소망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직 영혼이 하늘나라에 갈 소망으로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는 여호와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5.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기만 하면

하나님은 40년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복이 헤어지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올 때 여러벌의 옷을 가지고 온 것도 아닙니다. 그들의 옷이 떨어지지 않는 나일론으로 만든 옷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옷은 우리들의 것과는 비교도 안될 정도로 차이가 나는 옷이었습니다. 3,500년 전에 어떻게 그 옷들이 헤어지지 않았을까요? 광야에서 길쌈도 못하고 구름이 올라가면 자다가도 일어나서 눈 비비며 천막거두고 따라가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천막을 치다가도 갑자기 구름이 또 올라가면 다시 천막을 거두고 또 떠나야 하는 처지의 삶이었습니다. 이는 하나님 절대주의 신앙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밭도 부름지 않도록 하시고 40년간 말병도 안나게 건강도 지켜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대로 잘 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옷도, 건강도, 먹여 살리는 것도 책임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믿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말씀에 절대 순종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순종하는 믿음을 보이면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나 좋은 것으로 풍성케 하시며 책임져 주십니다. 물이 흐르는 시내로 인도하시고 땅에서 솟아나는 샘이 있는 분천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끌려 사는 이스라엘 백성을 곡식이 풍성한 곳으로 인도하시고 온갖 과일과 꿀과 벌도 많은 기름진 곳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사십시오.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 위해 더 겸손히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믿어 하나님으로부터 합격의 영광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뿌리가 깊고 심지가 견고하여 흔들림이 없구나’란 인정을 받으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주십니다. 하나님이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때때로 손해가 되는 것 같은 명령이라 할지라도, 영적으로 유익을 주는 명령으로 알고 순종하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은교회 장재효 목사 TV / RADIO / 신문 / 인터넷 동영상 설교

한 국 선 교 설 교					
T V 한국 방송 설교			한 국 신 문 설교		
CBS TV	목요일 오후 2시		크리스천 투데이	7면 설교 / 동영상·인터넷신문 설교	
CTS TV	금요일 오전 6시		경북 기독교 신문	3면 설교	
			기도원 연합신문	3면 설교	
해 외 선 교 설 교					
T V 미국 방송 설교			라 디 오 미국 방송 설교		
COX TV 워싱턴DC.	화요일 오후 6시	목요일 낮 12시	AM1540 라디오 코리아	주일 오전 7시 / 동영상 설교 제공	
	토요일 오전 7시	주일 오후 10시30분	AM1590 시카고 기독교방송		
CTS TV	수요일 서부 오후 4시30분 / 동부 오후 7시30분		AM1190	월요일 오전 11시 20분	
	토요일 서부 오후 6시 / 동부 오후 9시		AM1190	월요일 오후 5시 / 하와이 현지시간 오후 5시	
미 국 신 문 설 교			LA 미주 복음방송		
기독일보	5면 설교	오프라인 칼럼 설교	AM1310 기쁜소리방송	화요일 오후 7시30분	금요일 오후 2시30분
	인터넷신문 설교	온라인 칼럼 설교	FM91.5(SCA) AM1650 LA 기독교방송		
크리스천 헤럴드	7면 설교	오프라인 칼럼 설교	수요일 오후 1시, 오전 2시		

지구촌 어디서든 YOU TUBE에서 “장재효 목사”를 검색하면 동영상 설교들을 선택시청 가능합니다.

提供 국제 성은복음선교회

2014 미주기독교대학박람회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해외한인장로회 총회 직영신학원
(한국 장로회 통합측 목사고시, 안수가능)
1-20발행 및 각종 장학제도

15605 Carmen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Tel, 424-926-1023, 4691 Fax, 562-926-1025
www.ptsa.edu

플러신학교 선교대학원 한국학부

135 N.Oakland Ave, pasadena, CA 91182
Tel, 626-584-5574 http://korean.fuller.edu

호라이즌대학교

학위취득 과정 및 학생모집 학과
학사: 신학/ 상담학
석사: 신학/ 목회학/ 상담학
박사: 신학/ 상담학

CA 주정부 교육국 BPPE 인가
연방정부 승인 SEVIS 1-20 자체 발행
520 S.La Fayette Park Pl. #411 LA, CA 90057
Tel. 213) 736-5000 Fax. 213)736-5115

복음대학교 EVANGELICAL UNIVERSITY

TRACS 정회원 인증
특전: Sevis 1-20 발행/ 선교사 장학금 및 각종장학제도 있음
학사과정: 성경학 학사(B.A. in Biblical Studies)
석사과정: 목회학 석사(Master of Divinity)
종교학 석사(Master of Art in Religion)

2660 W.Woodland Dr, #200 Anaheim, CA 92801
Tel, 714-527-0691(0692) Fax, 714-527-0693
www.evangelia.edu info@evangelia.edu

미주대한신학대학

개혁주의에 기초한 성경해석과 성경에 대한 종합적 사고능력 배양,
교회 역사와 신학에 대한 구속사적 안목의 정립,
말씀을 실천하는 신실한 주의 종 양성,
세계 복음화를 위한 영적인 리더십의 준비.

1325 12th Ave, Los Angeles, CA, 90019
Tel, 323-731-9819

솔로몬 대학교

땅끝까지 제자를 삼아 복음을 전하자 (마태복음28:18-20)

총장: 백지영 박사 부총장: 브랜트 프라이스 박사
3921 Wilshire Blvd, #400 Los Angeles, CA 90010
Tel, 213-381-7755 Fax, 213-381-5055
http://solomonuniv.org/

AMERICAN BAPTIST SEMINARY OF THE WEST, BERKELEY, CA

L A Campus 목회학 박사과정
(매년 1, 6월 통역제공, GTU 와 ATS 정회원)

Dr. Hoi Chang Kim: (213) 268-9367
hoichangkim@hanmail.net
Dr. Hyo Shick Pai: drhyopai@gmail.com
ABSW President: Dr. Paul Martin www.absw.edu

통신신학 *한국상고사(한단고, 규원사학)

- 신학(학사, 석사, 종교철학박사 전공) .
- 한국상고사(고조선, 고구려, 백제, 신라, 발해) 전과정은 일제 식민사학 (단군신화)이 아닌 전통역사사 한단고, 규원사학 중심으로 학사, 석사, 박사 단계 완성 가능함.

*본교는 캘리포니아 Education cord #94874 비영리종교법인(연방 501C3)에 의해 설립된 교육기관으로 한국장로교단 미주노회에서 남,녀 목사안수 가능함.

아메리칸 중앙대학교 중앙신학대학원 www.acus-edu.us
mail, 379 Loa drive #301 LA, CA 90017 paul Lim : 213-908-8986
email : acus-edu@hotmail.com / acuslimjeongui@gmail.com

코헨대학교&신학대학원

With the world!
To the world!

17002 S,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el, 424-257-8176 / Fax, 424-257-8136
www.cohenuniversity.ac

캘리포니아 두란노 대학 신학대학원

목회학, 신학, 철학박사 California Tyrannus University
BPPE Ed. code 94874, Sc code 22426
CEO 학감 김호 박사

1008 S. Kingsley Dr, Los Angeles, CA 90006
Tel, 213-507-1933

미주총신대학교 CHONG SHIN UNIVERSITY IN USA

개혁주의 신학의 전통을 바탕으로 하나님께 소명을 받아
21세기 교회와 세계 선교 사명을 이끌어 갈
사명자들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이사장 김연도 박사(D.P.M.) 총장 김근수 박사(Th.M., Ph.D.)
2975 Wilshire Blvd.#300, Los Angeles, CA 90010
Tel: 213-487-1010 e-mail : info@chongshinusua.edu
www.chongshinusua.edu

미주성결대학교

한국성결교회 100년,
미주성결교회 30년,
미래를 책임지는 미주성결대학교!

1818 S. Western Ave, #409 Los Angeles, CA 90006
Tel, 323-643-0301 Fax, 323-643-0302
www.aeui.us

크리스천 자녀를 위한 골프 . 성경교실

저렴한 비용으로 골프와 성경공부를 함께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

성경공부를 통해 영성과 인성교육을 하며, 골프를 통해 집중력과 체력향상을 시켜줍니다. 귀한 자녀에게 이 두 가지를 함께 가르치는 전문인에게 믿고 맡겨주십시오. 달라지는 자녀의 모습을 보게 되실 겁니다.


* 픽업가능

▪ 성인을 위한 무료 골프교실도 오픈합니다. (성경공부 필수)

▪ 문의 : 최 제이콥 Professional (310-598-0746)
▪ Email : mrjacob601@hotmail.com

<최 제이콥>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New Bridge University Golf Management
The Reformed University 대학원
Dae Han Theological Seminary, U.S.A 선교학 Ph.D



세금무료상담

**확실히
줄여드립니다!!**

이정운 CPA

- 개인 및 사업체에 맞는 절세
- 웹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서비스 및 고객 데이터베이스 구축
- IRS,FTB,SBOE,EDD 세금문제해결
- 저소득층 세금환불(ETC)
- ITIN(개인납세자번호)신청 및 공증
- FAFSA,소셜연금,해외자산신고 상담
- 정확한 서비스와 저렴한 수수료

Tel (213)387-2004

www.cyleecpa.com

3130 Wilshire Blvd. Ste 405, Los Angeles, CA 90010

Tax season 연장근무!!
(평일 9 am - 8 pm, 토요일 10 am- 5 pm)
(무료주차!! Free Parking!!)

무료 체험(온열 요법)

당뇨 합병증 으로 **발** 이저리고 아프신분

- 발이 차고 시리며 저리신분
- 각종 통증으로 고통이 심하신분
-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통증이 심하신분
- 퇴행성 관절염으로 고생하시는분
- 병원에서 치료가 잘 안되시는분

주님이 주신 자연치유 요법으로 편안케 해 드립니다.

“예약하신분만 체험이 가능합니다”

2836w 8th # 106 Los Angeles CA 90005

전화: 213)381-7273, 213)605-2928

미주 기독교 의료봉사 센터

새로워지려면



김 세 환 목사
LA한인연합감리교회

니다. 비울 수 있는 만큼만 새롭게 살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전에 한국에서 전도사로 섬길 때, 청년회장을 하던 자매를 만났습니다. 이제는 제법 중년의 티가 납니다. 성격도 좋고, 외모도 출중해서 잘 살고 있을 줄 알았는데 이혼을 하고 혼자 살고 있답니다. 이유를 물으니 남편이 마마보이(mama's boy)였다고 합니다. 남편은 껌데기일 뿐이고, 모든 일들을 시어머니가 직접 결정해 줍니다. 마치 공산당 앞잡이처

럼, 모든 일들을 시시콜콜, 속속들이 시어머니에게 보고했다고 합니다. 헤어진 지 이미 십년이 지났건만, 지금도 결혼 이야기가 나오면 그 자매는 치를 떨며 머리도리질을 쳤습니다. 완전히 떠나지 못해서 그런 비극적인 결과를 낳은 것입니다.

헤르만헤세(Hermann Hesse)의 <데미안>(Demian)에 보면, 젊은 시절에 한번쯤은 들어 보았을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 등장합니다. 방황하던 싱클레어가 그린 그림을 보고 데미안이 준 쪽지에 써진 글입니다.

“새는 알에서 나오려고 투쟁한다. 알은 세계이다. 새롭게 태어나려는 자는 하나의 세계를 깨뜨려야 한다. 새는 신을 향해 날아간다. 그 신의 이름은 아브라하스!”

새롭게 태어나려면 먼저 자기를 가두고 있는 알을 깨야 합니다. 자신의 세계를 깨는 사람만이 새로운 세상을 열 수 있습니다. 한번쯤은 깊이 되새겨 볼 말입니다.

선교사 가정들과 함께 한 섬김의 시간



민 종 기 목사
충현선교교회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대부분 선교사로 구성된 57명의 참가자를 미국, 한국, 캄보디아에서 모여든 40명의 봉사자들이 섬기는 충현동산 29기가 성공적으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치유와 회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시작된 이 집회가 가슴 가득한 즐거움과 사랑과 아쉬움을 가지고 이제 마무리 된 것입니다. 교회의 지원과 기도, 성도 개개인들의 헌금과 선물과 편지를 통하여 풍성한 사역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음에 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성도님의 헌신을 주께서 받으셨음을 믿습니다.

멀리까지 와서 선교사님을 섬긴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불경기의 어려운 경제상황에서도 환경에 매이지 않고 나온 여러 봉사자들은 물심양면의 헌신적인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셨습니다. 현재의 김정룡 선교사님 부부, 박용찬 선교사님 부부, 천강민 선교사님 부부, 서남아시아 선교사님 부부와 박민권 선교사님의 참여와 봉사는 작은 선교대회를 치르는 것과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작은 인원으로 많은 선교사님 부부를 섬긴 것은 봉사자들의 오랜

동안의 기도와 고된 훈련, 그리고 협조와 사랑, 그리고 자발적이고 조직적인 헌신이 낳은 결과입니다.

많은 선교사님들이 영성을 회복하는 기회가 되었으며, 가지고 온 문제를 해결하였다는 고백을 들을 때에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선교사님을 회복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집중적인 봉사를 하는 우리의 영혼에도 많은 즐거움과 기쁨이 넘쳤습니다. 돕는 자나 도움을 받는 자나 하나님께서는 많은 복으로 채우시면서 영혼과 영혼의 일체감을 맛보았습니다. 열심히 찬양하고 기도하는 선교사님들은 다음에도 이러한 프로그램을 빨리 와서 해달라고, 어린이를 위한, 선교사의 자

제들을 위한 충현동산을 해주었으면 좋겠다고 말합니다. 선교지에서 영어권의 사람들을 위하여 영어로 충현동산을 해달라는 요청도 있습니다.

어느 것 하나 쉽게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더 많은 기도제목을 가지게 됩니다. 더구나 우리 선교사님들의 애환을 바라보면 마음이 아프고 눈물이 납니다. 현희정 선교사님은 이명증과 어지럼증으로 어려움을, 성정숙 사모님은 교회, 학교, 아이들을 돌아보시느라 건강이 염려될 정도입니다. 천강민 선교사님의 부인 이정희 선교사님, 박용찬 선교사님의 부인 김명희 선교사님 모두 고난 중에 사역을 감당하고 몸이 부서지도록 봉사하면서 극한적 한계 상황에서 열심히 사랑을 실천하셨습니다.

인도차이나의 운명을 개척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귀중한 선교사님들을 파송하여 주셨습니다. 이 귀한 선교사님들을 섬김으로 회복시키는 것은 일기당천의 용사를 섬기는 것입니다. 보람을 가득히 안고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사역을 마쳤습니다.

한 평생 배우는 학생



현 순 호 목사
실리콘밸리노인선교회

“나는 한 평생 학생이야. 학교만이 아니고 직장에서도 그랬고 은퇴한 후에도 계속 배우러 다녀. 어른들이 공부해서 남 주냐 말하듯, 배워두면 써먹을 때가 생겼”라고 말하던 한 선배의 말은 참 일리가 있다. 사람은 태동에서부터 어머니의 생각과 감정을 배우며 자라다가 세상 밖으로 나와서도 그 터전 위에 가족과 학교 그리고 사회를 통하여 많은 것을 배운다.

처음에는 본능을 따라 배운다. 배고프면 먹을 것을 찾고 목 마르면 물을 찾는다. 때가 되면 짝을 만나 아들 딸 낳고 키우는 것이 다른 동물들과 별로 차이가 없다. 마치 호랑이 새끼가 태어나 어미를 따라 다니며 사냥을 배우고, 순한 아기 사슴이 어미에게서 독초를 피하고 필요한 풀과 물 있는 곳을 찾는 법을 배우며 자라듯, 사람도 생존에 필요한 것을 여러모로 배우지만 만물의 영장답게, 동물과 다른 점은, 지식을 얻고 지혜를 쌓아서 과거를 살피고 현재의 삶을 좀더 풍요롭고 편리하게 만든다는 것, 미래를 준비한다는 것이다.

그 많은 배움 중에 무엇이 우선되어야 하는가? 지혜로운 유대인들은 창조주와 부모님을 섬기는 것을 첫째로 꼽았다. 마치 집을 지을 때 기초공사를 튼튼히 잘해야 그 위에 세워지는 건물이 태풍이나 지진에 견딜 수 있듯이 사람은 기본적인 목적이 없으면 쉽게 악한 세속에 휩쓸려가거나 또한 끝없이 일어나는 자신의 욕망에 이끌리게 되고 심하면

망하게 된다. 그러기에 유혹하는 세파를 이기고 욕심을 절제하는 힘은 계속되는 건전한 교육에 있다.

이웃에 한 교포가정이 있다. 6살 난 손녀와 4살 손자가 같이 잘 놀다가도 싸움이 붙는다. 이유는 꼭 같은 장난감을 가지고 놀다가 자기가 두개를 다 가지겠다고 하거나 때로는 과자를 나누어 줘도 상대방의 것이 더 크다고 빼앗기도 해서다. 이것이 본능이다. 그때 엄마가 나서서 둘을 앉혀 놓고 조용하게 그리고 사랑스럽게 설명해서 이해시키는 것을 보았다. 그것이 교육이고 도덕이요 윤리다.

배우는 방법은 다양하다. 스승이나 책도 될 수 있지만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많이 배운다. 경우에 따라서는 어른이 어린아이에게서도 배우고 심지어는 곤충인 개미에게 가서 배우라는 성경 구절도 있다. 뿐만 아니라 자연을 통해서도 얼마나 많은 것을 배울수 있는가! 매일 동쪽 하늘에서 힘차게 솟아 올라오는 해는 어두움을 쫓아내고 만물이 생존할 수 있는 조건들을 만들

어 주면서도 어떤 대가를 요구하거나 힘들다고 푸념하지 않는다. 밤에는 은은한 달과 작고 큰 별들이 정답게 제 궤도를 따라 돌고 또 돌려밤길을 밝혀준다. 그것 뿐이라! 높고 낮은 구름은 바람 따라 오고 가며 비를 내려주어 모든 동식물이 먹고 마시고 살 수 있게 도와 준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교과서요, 선생들이지만 우리는 그것들을 보면서 깊은 진리를 깨닫지를 못하고 감사할 줄 모른다.

은퇴를 한 어떤 친구는 아침 5시 30분이면 기계처럼 일어나 목상으로 하루를 시작해서 밤 10시 침실에 들 때까지 배움으로 시간표가 꽉차 있다. 오전 6시부터 1시간 영어 뉴스를 보고 전날의 삶을 영어로 일기를 쓰고, 7시부터 1시간은 언덕을 오르내리는 숨찬 운동을 하고 8시에 식사를 끝내고는 커뮤니티칼리지에 가서 손자뻘 되는 학생들과 공부한다.

오후에는 그림그리기와 컴퓨터를 배우고, 토요일에는 골프를 배우고 일요일에는 교회에 가서 성경을 배운다. 그분은 미국에 와서도 공부를 많이 했지만 지금도 계속 배운다고 한다. 그는 배운 지식과 지혜를 혼자만의 것으로 간직하지 않고 남들과 공유한다. 특별히 소외된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찾아가서 용기와 희망을 심어준다.

모든 사람을 선생으로 모시는 학생의 자세는 자신을 위해서도 유익하지만 주위 사람들에게는 장미 이상의 향기를 뿜어낸다.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M3[®] 세트

- 좋은 흙에서 나온 식물성 원료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믿을 수 있습니다.
- 체내 흡수가 빠르므로 복용 효과가 높습니다. (1-3일 내)
- 혈액을 깨끗하게 하고 혈액 내에 영양을 공급하여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함으로서 무슨 병이든지 큰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 세계 특허(특허번호 51281391) 공법으로 제조되어서 복용 후 체내 흡수율이 다른 제품에 비해 월등히 높습니다. (흡수율 92-96%)
- 셀라케어의 모든 제품은 남녀노소 모두 복용가능합니다.

유태인이 만든 특수영양제 - 셀라케어
SELLA CARE[®]



혈액 해독 / 기력회복

천연 항염, 혈관 탄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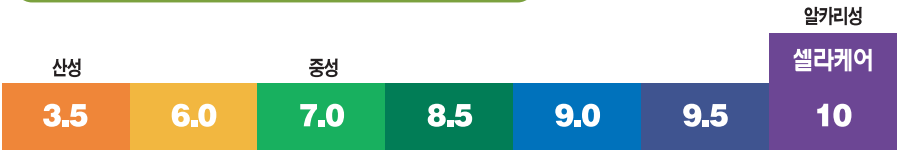
심장, 뇌 혈전응해

뼈, 골수 영양공급

권장소비자가격: \$184/병

눈으로 직접 확인 하세요!

병치료와 장수의 시작은 피를 맑게 하여 알칼리화 시키는데 있습니다




셀라케어 제품은 6년 경작후 1년 휴지기를 지키면서 유기농으로 재배한 작물을 엄선하여 우리몸에 흡수가 잘 되는 알칼리성으로 만듭니다.

많은 영양제중 M3만이 알칼리 테스트(PH Test)에서 최고 품질 보라색으로 변합니다

셀라케어 효능사례

무슨 병에 걸렸든지 큰 효과를 줄수 있는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발작.자폐증.무감각증	시력장애인으로 태어나 무감각증으로 폐인 상태, 셀라케어 복용 후 완치되어 등산도 다닐 정도입니다. 방세환(20세, 원주) 010-5599-2633
대장암 말기	대장암 말기에서 간으로 전이된 상태, 2달 복용후 정상으로 회복됨
원자력 피해	일본 2세 남자아이 원자력 피해로 말 못하고 걷지 못했으나 M3 셋트 2달 복용후 말하고 걸을 수 있게 됨 토요타 빅토리아 8180-1339-2069
심한 부정맥,해소,천식	심장수술을 받은 분으로 3일 복용 후 상태가 많이 호전됐음. 30년이상 가만히 천식과 심한 부정맥으로 고생했으나, 셀라케어 복용 후 정상으로 돌아옴. 박옥현(77세)
유방암 완치 후 모유수유	오른쪽 유방암으로 간, 폐, 골수까지 전이된 상태에서 두 달 동안 많은 양의 M3셋트를 주스에 같이 복용 후 심한 호전 반응 겪고 완치됨.그후 4년뒤 늦둥이를 출산하여 지금 모유수유를 할 정도로 완쾌. 양호연(42세, 엘에이) 213-215-6991
간질과 약물중독	16년동안 하루에 몇번씩 간질을하여사회생활을 제대로 못했는데, 지금은 직장생활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건강함. 간질중에도 호전됨. 복용 후 190lb가 125lb로되고 시력,피부,마라카리 좋아짐. 오윤희(26세, CA가디나) 213-604-1992
직장암, 대장암 말기	처음에 수술이 불가능하였으나,복용 후 대장속에 있었던 숙변이 피와 함께 쏟아지면서 몸에 있던 큰 혹들이 줄어들며, 복용 후 6개월 후에는 깨끗하게 치료됨. 이순남(77세, 엘에이) 323-533-0624
심한 아토피	6년동안 심한 아토피로 고생이 심했는데 복용 1개월 후 부터 피부가 깨끗해지며 잠도 잘 자고 키도 많이 커졌고 정신적으로 많이 안정이 되었음. 에스터 양(10세, 산타모니카)213-215-6991
대장암	대장암 초기판정을 받았고 병원 치료를 받던 중 M3셋트를 먹기 시작, 수술하지 않고 복용 석달 후 완치 되었음. 한국 010-7928-7986
비만.우울증.야노증	어려서부터 심한 비만으로 11세에 체중이 190파운드 였으나 셀라케어 복용 2달후부터 살이 빠지기 시작 하면서 현재는 130파운드로 유지됨, 우울증, 야노증이 깨끗하게 치유 되었음. 샘 양(15세, 엘에이) 213-219-7746
심한 당뇨, 고혈압	30년된 고혈압과 당뇨로 매일 약을 먹던 중 M3셋트 복용 후 4개월이 지나면서 혈압과 당도가 정상으로 되었고, 절단직전의 다리와 온몸의 검은 피부가 회복되었음. 오일동(52세, 가디나)
심한 알라지,우울증,불면증,녹내장	코카콜라 쿨톤을 빤 새우는 고통 중 M3셋트 복용3일 후 완치, 심한 심장 압박과 하지정맥까지도 치유됨. 정수지(61세, 베버리 힐) 310-800-8242
심장병,담석,전립선	10년 동안 고혈압과 밤마다 잦은 빈뇨와 다리가 저려서 고생했는데 셀라케어 복용 후 악성 빈혈과 혈압이 정상으로 되고 담석으로 인한 고통도 사라졌습니다. 마사루(58세, 부산)
심한관절염,변비,생리통	손가락이 심하게 아파 소염 진통제로도 잘 안들었으나 셀라케어로 통증이 가셨고 변비도 해결 되었으며, 큰 딸의 생리통과 우울증도 사라졌음. 황정희(39세, 팔로스버디스)
중풍마비.당뇨.고혈압	15년 동안의 고혈압, 당뇨를 딸의 권유로 셀라케어 복용 후 7개월 만에 고혈압,당뇨, 왼쪽 마비도 정상 회복됨. 민현자(65세, 방배동)
등 수술후 심한 손떨림	바리리스 침투로 인한 등 수술 후 8년 동안 심한 손 떨림으로 고생중, 복용 일주일 후 부터 혼자 밥을 먹을 수 있을 정도로 손 떨림이 없어지고 안정됨. 박성섭(63세, CA 토렌스)
자폐증	가족과 의사 소통이 되지 않으며 손발이 항상 차고 손 발끝이 너무 같이 딱딱 했는데 복용 열흘 후 부터 손발이 따뜻하고 부드러워 졌으며,가족과 의사 소통이 가능 해지고 상태 좋아짐. 정대진(16세, 엘에이)
체장암 말기	60세 중반에 가장 힘들다는 체장암 말기로 병원에서 두 달 시한부 선고를 받고 M3셋트를 복용하고 2개월이 지나면서 부터 기적적으로 체장의 기능이 정상으로 돌아왔음. 피터 리(65세, 엘에이)
폐암 말기	50세에 찾아 온 암으로 고통 받던 중 복용한지 한달 20일 후 부터 암 수치가 3.5cm에서 1.2cm로 작아지면서 좋아지기 시작하여 5개월 후에는 암 크기가 30%로 작아졌음. 이정수(51세, 서울)
자가 면역 질환	허구병으로 부종, 부분적인 감각 상실, 지속적인 중기, 결국은 폐가 굳어지는 불치병으로 M3복용 3일 후 피검사 결과 혈액수치 정상으로 나온 후 한달 복용 후 모두 정상으로 돌아옴. 미세스 팍(뉴저지)
모유 아주적음.심한부종	모유수유가 안되어 애를 먹었는데, 셀라케어 복용 후 모유가 더 잘 나오며 심했던 부종이 눈에 띄게 좋아졌으며, 신생아기도 변을 잘 보고 잘 자고 푹푹해졌음. 이은영(32세, 세리토스)
혈액투석	1주일에 3번씩 2년 6개월동안 혈액투석 해 왔는데, 2달 복용 후 혈액투석 횟수가 점점 줄었고, 지금은 혈액투석을 아니함. 장영순(53세, 한국 서울)
중풍으로 인한 마비	심한 중풍 후유증으로 고생하며 인생 말년에 찾아온 병으로 비관하며 좋다는 약을 찾던 중 M3셋트를 알게되어 복용 한지 3개월 후 부터 서서히 중풍으로 인한 마비가 풀려 너무나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음. 김정훈(76세, 한국 대구)
임파선암	2년전 임파선 암 수술했음. 셀라케어 복용 후 한 달 20일만에 왼쪽 가슴 유두에서 피고름이 나왔으며, 지금은 키모를 받지 않아도 될 정도로 회복 됨. 조인숙(53세, 시카고)
갑상선암과 심한 관절염	13년동안 심한 관절염으로 신문 한장도 들기가 어려웠고 밤에는 불면증으로 고생, 셀라케어 한달 복용 후부터 심했던 통증이 차차 가라 앓고 갑상선도 정상으로 회복 되어짐. 김정연(39세, 다이아몬드 바)
전립선암과 부정맥	소변이 힘들고 밤에는 7번씩 소변을보았으며, 심한 부정맥으로 고생 하였음. 복용 2달만에 밤에 화장실 가지 않게 되고 혈액 검사 때마다 혈관 찾기가 힘들었으나 지금은 혈액 흐름이 원활하여 계속 복용하고 있음. 필립 남(72세, 벨리)
파킨스 병	3일 복용 후 몸이 가벼워지며 계속 복용하면서 자유로운 외출과 친양 사약자로 다시 일할 수 있을 정도로 되어 지금은 외출을 두려워하지 않게 됨. 브라이언 김(70세, 버지니아)
반신불수	목사님 이었고 5년의 뇌수술 후 반신불수가 되었는데, 복용 2개월만에 지팡이도 버리고 걸어다니고 있음. 왼쪽 마비도 많이 풀렸음. 최정석(50세, 엘에이)



건강과 성경 이야기 25

히포크라테스하면 서양의학의 아버지라고 불릴 만큼 유명한 의사였습니다. 그히포크 라테스는 약물이나 수술보다 음식과 운동 과 같은 부드러운 치료법을 우선으로 하였 는데 섭생법(攝生法) 이라고 하여 인체의 생명력, 자연치유력을 존중했습니다. 그리 고 그의 명언들을 보면 “나의 음식이 약이 되게 하고 너의 약이 음식이 되게 하라” 또는 “음식으로 고치지 못하는병은 약으로도 고치지 못한다”라는 실제적이고도 명확한 입장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모든 병은 잘 못된 음식으로 시작되며 고치는 것도 음식 으로 고칠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합니다.여 러분들도 피를 산성화시키는 음식들이 내 몸을 아프게 한다는 말을 들어 보셨을 것 입니다. 피를 산성으로 만드는 음식은 몸 을 쉽게 지치고 피로하게 만들며 신경을 과 민하게 만듭니다. 피를 산성화 시키는 음식 을 살펴보면 흰쌀, 계란노른자, 닭고기, 밀가 루, 돼지고기, 소고기, 치즈, 버터, 참치, 오징 어, 대합, 굴 등이 있고 피를 알칼리화시키 는 음식으로는 마늘, 다스마, 송이버섯, 바나 나, 딸기, 사과, 고구마, 감자, 생강, 양배추, 당 근, 호박, 시금치 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산 성과 알칼리를 구분해서 잘 알아도 실제로 생활하면서 알칼리성 음식만 먹고 살 수 없 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기서 성경말씀을 잠시 살펴 본 후에120세까지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방 법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로마서는 사 도바울이 3차 전도여행 때 기록된 것으로 예루살렘의 가난한 성도들을 위하여 마케 도냐와 아가야 교인들의 헌금을 모아 고린 도에 3개월 동안 머물렀을 때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15장25절2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3장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크고 작은 죄를 범했다고 합니다. 하 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죄와는 같이 살 수 없기 때문에 천국에 갈수 없다는 이 야기 입니다. 그럼 어디로 가겠습니까? 요 한계시록20장15절에 **“누구든지 생명책 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 라”** 라고 불이 끓는 연못이 지옥이라고 성 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

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 라” 예를들면 우리가 야구경기나 어떤 놀 이를 하다가 고의든 실수든 유리창을 깬다 면 유리창 값을 물어내야 하는데 그 누군가 가 우리를 대신해서 유리창 값을 내어주었 다면 우리는 유리창값을 다시 지불할 필요 가 없게 되는 것처럼 예수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전부 지불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죄값을 낼 필요 가 없다는 것을 믿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요 한계시록3장20절 **“불피어서 내가 문밖 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 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 라”** 여기서 말하는 문은 마음의 문입니다. 예수그리스도를 믿겠다고 마음의 문을 여 시겠습니까? 듣는 모든분은 “예” 라고 대답 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마 음의 문을 여시겠습니까? 예, 진정한 마음 으로 믿고 입으로 “예”라고 시인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로마서10장10절 **“사람 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 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따라 해주세요. 하나님 아바 지 저는 죄인입니다.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저를 살리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을 믿 습니다.제 삶에 있어서 오직 하나님만이 구 주이신 것 또한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죄를 사하여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제 삶 에 오셔서 어떻게 사는 것이 좋은지 가르쳐 주세요.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 니다. 아멘. 예 잘하셨습니다. 로마서 10:13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 원을 얻으리라”**라고 하신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모든 분을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럼 건강한 음식 먹는 법을 소개 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알카리 음식으로 알고 먹고 있는 음식도 사실은 산성화, 공해 등으로 인하여 영양분이 거의 없습니다. 음식과 좋은 흙에서 나온 미네랄을 함께 드 신다면 병에서도 고침을 받고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믿어보시기 바랍니다. 무슨 병 에 걸렸든지 큰 효과를 주는 신비한 기적 의 영양제M3, 유태인 특수영양제 M3를 권 해드립니다. 무료건강상담과 기적의 영양제 M3에 관한문의는 213-435-9600번 입니다.

무료건강상담 문의 213-435-9600

셀라케어 제품은 유태인 코서인증의 고급 유기농 원료로 만든 미국제품으로 미국 FDA인증의 GMP생산품 입니다. www.sellacare.com

본사(LA)	213.435.9600	뉴서울호텔 (필라)	213.386.5310	플러튼 베스트케어약국	714.670.7979	동부총판	201.983.8333
시온약국	213.382.6485	LA벌론 마틴약국	213.382.9718	에나하임	714.469.5809	시애틀	206.331.6655
LA 아드모아약국	213.385.2135	LA벌론 갤러리아마켓약국	213.388.4100	다이아몬드바 JJ 약국	909.595.4003	씨애틀 (건강마을)	206.229.5466
LA 한국마켓약국	323.464.3925	가주건강종합백화점	213.388.0091	H 마트 내 H 헬스 (다이아몬드바)	909.594.6370	세크라멘토,아리조나	602.332.6492
LA 베스트약국	213.385.9926	가디나	714.351.0440	랜초쿠카몽가	909.987.9500	센루이스,캔사스	314.570.9629
우리약국 (우리종합병원내)	213.384.6323	글렌데일 한국마켓 약국	818.637.7708	얼바인	949.330.9009	하와이(생약촌)	808.947.8086
에스약국	323.733.7788	벨리	818.642.8223	H 마트 내 H 헬스 (얼바인)	949.251.0193	하와이 총판	808.359.3376
올림픽갤러리아마켓약국	323.733.7200	벨리 소망 약국	818.832.2757	놀렉 H 마트 리빙헬스	562.402.8859	시카고 서울마켓 (헬렌)	847.877.6346
LA 다운타운	213.798.3333	오렌지카운티	714.795.1540	파이오니어약국 (세리토스)	562.402.6972	조지아 (발아건강식품)	770.457.1717
LA시온마켓엄마손약국	213.739.3030	부에나팍 종로의료기구	714.530.8275	세리토스 그린라이프	562.402.6970	텍사스 (로얄백화점)	972.620.2900
LA 6가 버질약국	213.384.1200	가든그로브 건강마을	714.636.2588	그린랜드 건강헬스 (그린마켓 내)	626.839.2868	플로리다	770.457.1717
LA 사랑방	213.351.9552	시온마켓 내 시온헬스	714.730.2707	로랜하이츠	626.912.5727	캐나다	604.872.1669
LA내처영양센터	213.739.8874	플러튼 내처영양센터	714.690.0120	지구촌약국 (H마트 내)	213.820.1469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요15:7)

“분쟁과 싸움 그치고, 폭풍 헤치며 더 큰 바다로 나아갈 때”

제7회 개혁주의생명신학 포럼 ‘회개와 용서로 하나되는 한국교회’



개혁주의생명신학포럼의 시작을 알리는 개회예배가 진행되고 있다.

제7회 개혁주의생명신학 포럼 ‘회개와 용서로 하나되는 한국교회(계 2:5, 요 17:22)’가 13일 서울 방배동 백석아트홀에서 개최됐다.

이날 포럼은 개회예배 및 주제설교, 주제발표, 패널토의 및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발표에는 김명용 총장(장신대)이 ‘성경에서 본 회개와 용서’, 소강석 목사(새에덴교회)가 ‘동로마제국의 멸망과 한국교회 연합운동의 미래 전망’, 최갑종 총장(백석대)이 ‘예수님의 메시지에 나타난 용서의 의미: 주기도문의 용서 청원(마 6:12)과 용서하지 않은 종의 비유(마 18:21-35)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각각 나섰다.

자존심 버리고 전체가 하나되어야



장종현 목사
개 회 예 배에서는 장종현 목사(예장백석 총회장, 백석학원 설립자)가 ‘회개와 용서로 하나되는 한국교회(계 2:5, 골 3:13, 요 17:22)’를 주제로 설교했다. 장종현 목사는 “지금 한국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이 오늘 주제인 ‘회개와 용서’라며 “회개와 용서 없이는 연합이 어렵고, 더 강력한 복음 전파를 위해 한국교회는 시급히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분열하는 교회는 어떠한 지지도 받기 어렵다”며 “한국교회가 다시 신뢰를 얻고 세상에서 예언자적 사명을 감당하려면, 무릎 꿇고 회개하며 조건 없이 용서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목사는 “오늘날 한국교회가 성장을 멈추고 사회에서 진정한 사랑과 존경을 받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복음의 참된 모습을 상실했기 때문”이라며 “복음의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놓쳐버린 채

외형적 껍데기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려 하지 않고 자신이 아는 것을 믿음으로 착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회개는 생명의 시작’, ‘믿음은 십자가 사랑’, ‘용서는 철저한 자기부인’ 등을 주제로 논지를 펼쳤다.

예장대신(총회장 전광훈 목사)과 교단 통합을 추진 중인 예장백석의 총회장인 장종현 목사는 “한국교회가 하나되기 위해선 회개와 용서가 반드시 먼저 이뤄져야 하지만, 한 교하나 한 교단의 노력과 수고만으로는 되지 않는다”며 “한국교회는 전체가 하나되어야 하고, 비록 성경 해석과 강조하는 교리가 다소 다르더라도 서로 이해하고 용납해야 한다”고 밝혔다.

장 목사는 “특히 개혁주의 신학을 가르치는 정통 보수교회들은 교단의 벽을 넘어 하나되는 일에 힘써야 한다”며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세상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명예와 물질, 심지어 나 자신까지, 내 안에 살아있는 마지막 자존심까지도 버릴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그는 “종교개혁 500주년을 앞두고, 개혁주의생명신학을 외치는 백석학원과 백석총회가 제2종교개혁의 발원지가 되면 좋겠다”고 기대했다.

용서가 선행될 때 회개도 일어난다



김명용 총장
김명용 총장은 “성경은 회개와 용서에 대해 매우 많이 언급하고 있는, 회개와 용서에 대한 교과서”라며 이웃에게 행한 잘못, 이웃을 넘어 하나님께 범죄한 것, 복음을 믿는 것과 관련된 것 등 회개의 세 가지 종류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이 세 가지 회개 중 가장 근원적인 것은

세 번째 차원”이라며 “이러한 회개는 세상의 악을 없애고 세상을 살리고 참된 화해와 평화의 세계가 만들어지는 진정한 시작”이라고 했다.

‘율법’에 대해 김 총장은 “전통적으로 신학은 율법이 죄를 깨닫게 한다고 가르쳤다(롬 5:13)”면서도 “죄를 인식하게 만드는 기능은 분명 있으나, 인간을 회개하도록 만드는 힘은 없다”고 했다. 그는 “그러므로 회개와 용서와 화해와 평화를 위한 일은 쉽지 않고, 결국 인간의 참된 회개는 복음을 통해 일어난다”며 “우리는 도덕이나 율법 교육이 갖는 한계를 알아야 한다. 도덕·율법 교육의 정점에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있을 것(마 23:33)”이라고 했다.

‘용서’가 선행될 때 ‘회개’가 일어난다고 했다. 그는 “회개하기 전에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는 사람들이 많고 회개할 때 용서해주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지만, 삭개이나 탕자의 비유를 보면 선행하는 사랑이 진정한 변화를 일으킨다”며 “이를 보여주는 것은 제2차 세계대전 후 전범국이었던 독일을 강력하게 지원하는 ‘마셜 플랜’으로, 세계를 지배하는 전쟁과 살인의 마귀를 몰아내는 힘은 용서와 사랑에 있음을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총장은 “타인의 잘못을 용서할 뿐 아니라, 타인에게 잘못된 일도 빨리 사과하고 화해해야 한다”며 “회개도 용서도 어렵지만 이 둘은 신속하게 이뤄져야 하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민족이나 국가의 회개와 용서에 주도적으로 깊이 개입해 영향을 미쳐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인간의 참된 회개와 용서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며 “십자가는 우리의 참된 실상을 드러내는 장소이자 나의 죄의 깊이와 넓이가 얼마나 큰지 계시된 곳”이라고 밝혔다.

교회의 타락, 대제국을 멸망의 길로



소강석 목사
소강석 목사는 동로마제국 멸망 원인을 통해 한국교회 분열의 원인과 연합을 위한 제언을 펼쳤다. 그는 “동로마교회는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린 채 끊임없는 성화논쟁을 일삼으며 분열하고 다투다 보니 교회도 힘을 잃고 국가의 힘도 서서히 쇠퇴하기 시작했다”며 “지금 한국교회도 복음의 본

질을 잃어버린 채 비본질적 기득권 싸움과 내부 파워 게임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소 목사는 “동로마제국은 서방의 고립정책 가운데서도 내적 분쟁만을 일삼으며 연합을 하지 않았다”며 “이에 비해 서구 기독교 국가와 교회들은 동로마제국 멸망 후 이슬람의 침입에 맞서 총 집결해 비엔나 전투에서 이김으로써, 기독교는 이후 유럽 전역에서 찬란한 부흥의 꽃을 피울 수 있었다”고 했다. 그는 “지금 한국교회는 편집증적 전통과 교리적 자존심 때문에 서로 싸우며 연합하지 못하고 있지 않은가”라며 “성경의 객관적 권위나 축자영감을 부인하는 주장이나 종교다원주의 사상은 절대 용납할 수 없으나, 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진리를 고백한다면 약간의 신학과 교리가 차이가 나도 연합과 일치를 이뤄야 한다”고 했다.

동로마교회는 성화 반대파가 교권을 잡을 때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어떻게 하든 성화 숭배파를 짓밟는 데만 정신을 쏟았다. 또 성화 숭배파는 성화를 팔아먹으면서 껌법에 관심을 가졌고, 성직자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 자기 사욕을 채우는 데만 관심을 뒀다. 이에 대해 소 목사는 “탐욕에 몰든 동로마제국의 모습 속에서 이 시대의 자화상을 다시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며 “한국교회는 내 이익보다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이 목표가 되고, 함께 서민의 웃음이며 소외되고 낮은 곳에 있는 자들을 포용하며 섬겨야 한다”고 했다.

또 동로마제국이 위기에 빠졌을 때, 각료와 종교 지도자들은 황제를 중심으로 하나가 되기보다 오히려 그를 무능하게 만들고 말았다. 결국 황제의 리더십은 추락했고, 나라는 물론이고 교회와 반대자들, 심지어 자녀들까지 공멸하고 말았다. 소 목사는 “오늘 한국교회는 지도자들의 지도력도 부재하지만, 평생 모시던 아버지 같은 영적 지도자를 하루 아침에 세상 법정에 고발하는 등 지도자들을 끌어내리려는 풍조가 만연해 있다”며 “한국교회가 다시 연합하려면 지도자들의 지도력이 회복돼야 하고, 그러기 위해선 먼저 지도자들이 뼈를 깎는 고통을 감내하며 영적 리더십을 행사해야 하며, 동시에 지도자를 무시하고 끌어내리려는 풍조도 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교회의 하나됨을 위한 방안으로는 △복음의 본질을 회복해

야 한다 △공동체 신앙과 연합 의식을 고취해야 한다 △분열과 다툼의 악순환을 끝내고 화해와 연합 운동을 시작해야 한다 △지도자를 배양하고 리더십을 세워가야 한다 △하나된 연합기관을 창출하고 새로운 제도를 모색해야 한다 등을 제언했다.

소강석 목사는 “동로마제국의 멸망은 한국교회 연합사업을 위한 경고요 교훈”이라며 “한국교회는 이제 분쟁과 싸움을 그치고 하나되어, 거친 폭풍을 헤치며 민족 복음화, 통일조국, 세계 선교라는 더 큰 바다, 소망의 항구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용서받기와 용서하기의 이분법 극복



최갑종 총장
최갑종 총장은 ‘주기도문의 용서 청원(마 6:12)’과 ‘용서하지 않은 종의 비유(마 18:21-35)’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용서와 사람의 용서 사이의 연관성, 그리고 용서와 회개의 관계 문제를 살폈다.

결론에서 최 총장은 “비록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과정에 있어 하나님의 무조건적이고 선행적인 용서가 있었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계속적 용서와 그분의 최종적 용서를 기대하려면 반드시 우리 형제 자매들의 죄를 용서해야 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만일 그렇지 않다면 우리 스스로 아직 하나님의 진정한 용서를 받지도, 체험하지도 못한 자임을 들춰내는 것”이라고 정리했다.

최 총장은 “한국교회는 복음적 신앙과 열심 등을 포함해 여러 장점이 있지만, 적지 않은 단점도 갖고 있다”며 “그 중 하나가 이분법적 사고와 행동으로, 용서받는 것과 용서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책임, 믿음과 행위, 기독교론과 제자론, 칭의와 성화, 나무와 열매, 직설법과 명령법을 각각 다른 것으로 간주하는 행태”라고 지적했다.

그는 “예수님은 본문들을 통해 이 모든 것이 서로 분리될 수 없는 유기적이고 통합적인 것임을 보여준다”며 “이런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 자리에서 용서받지 못하고 영원한 멸망의 자리가 주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대웅 기자

GOLDEN GATE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Biblical • Missional • Global

골든게이트침례신학대학원에서 한영이중언어과정 학생을 모집합니다.

학위과정: 목회학석사 (M.Div.) & 신학석사 (M.T.S.)
위치: GOLDEN GATE SEMINARY S SOUTHERN CALIFORNIA CAMPUS
골든게이트남가주캠퍼스 (251 S. RANDOLPH AVE, SUITE A, BREA, CA 92821)
지원 마감일: 12월 15일 (예비지원서 [PRE-APPLICATION] 는 11월 1일)

> 한영이중언어과정은

- 미래이민교회의 지도자들을 훈련시키는 목회자양성프로그램입니다.
- 세계최대의 개신교단인 남침례교회가 후원합니다.
- 본교의 자원과 커리큘럼이 활용됩니다.
- 성경적이고 선교적이고 세계적인 지도자 양성을 목표로 합니다.
- 탁월한 학문성과 교단의 지원 그리고 이민교회 목회자로서 온전히 구비된 미래교회지도자들을 위한 과정입니다.

본 과정은 주로 한영이중언어로 진행되지만 골든게이트신학대학원의 교수진과 자원이 충분히 반영됩니다. 북미주 최고의 학력인증기관인 the Association of Theological Schools (ATS)와 Western Association of Schools and Colleges (WASC)에서 학위를 인정하는 프로그램입니다.

CONTACT FOR CONSULTATION: 714) 256-1311 EXT. 124 KEB@GGBTS.EDU
FOR MORE INFORMATION: WWW.GGBTS.EDU/KEB

보코하람 납치 목회자, 10개월만에 교회 품으로

극적인 탈출 성공... 교계 놀라움과 감사 표현

나이지리아의 극단주의 이슬람 테러 단체 보코하람(Boko Haram)에 납치됐던 목회자가 10개월만에 탈출에 성공해 교회의 품으로 돌아와 현지 교계에 기쁨을 안겨주고 있다.

로티미 오바지미(Rotimi Obajimi) 목사의 귀환에 그가 속한 보르노 주 마이두구리(Maiduguri) 지역 교계는 “그의 무사귀환을 오랫동안 기도해 왔다”며, “예수님께서 그를 반드시 우리 곁으로 돌려보내 주실 것을 알고 있었지만 정말로 그가 교회로 돌아온 것을 보고 놀랐고 감사했다”고 밝혔다.

보르노 주는 나이지리아에서 종교 간 충돌이 가장 극심한 지역으로 기독교인의 박해 사건이 빈번하게 보고되어 온 지역이다. 최근 수년간 급성장한 보코하람의 주요 거점이 되면서부터 이 지역 기독교인들에게는 납치와 폭력, 살해 등이 일상이 됐다. 특히 보코하람이 목회자들과 예배 드리러 모여 있는 교인들을 주요 테러 대상으로 삼아 왔다고 지역 교계는 밝혔다.

오바지미 목사는 지난 1월 6일 보코하람 대원들에게 납치를 당했다. 그는 인근의 삼비사 숲으로 끌려갔으며 수개월 동안을 묶어 있었다고 증언했다. 이후 오바지미 목사는 한 차례 다른 지역으로 끌려갔다 왔지만 그곳이 어딘지는 알 수 없었다고 밝혔으며, 얼마 뒤에는 다시 삼비사 숲으로 돌아왔다고 전했다.

그는 자신이 늘 감시를 당하고 있었을 때도 불구하고 탈출할 수 있었던 것은 지역에 내린 집중호우로 인해 숲에 홍수가 일어나자 보코하람 대원들이 자신을 버리고 도망쳤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오바지미 목사는 며칠간을 숲에서 헤맨 뒤에 인근 마을에 도착했고, 이곳에 주둔 중이던 정부군이 그를 발견했다.

오바지미 목사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후에 군 당국의 조사를 받고 마이두구리 교회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었으며, 지역 교계 지도자들과 교인들은 이

에 대해 놀라움과 감사를 표현했다.

한편, 보코하람의 반기독교·반정부 테러 공격은 최근 들어 더욱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그 성향도 더욱 극단적으로 치닫고 있다고 나이지리아 교계 지도자들은 밝히고 있다. 특히 국지성 테러보다는 일정 지역을 점령해 나가는 방식으로의 전술 변화와, 지역민들에 대한 조직적인 박해는 이라크와 시리아 지역에서 행위를 떨치고 있는 이슬람국가(IS)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나이지리아 수도인 아부자 교구의 패트릭 알루무쿠 신부는 앞서 가톨릭 뉴스 에이전시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점령 지역 중 하나인 미치카(Michika)에서 교회들이 파괴되고 있으며 수만 명에 이르는 주민들이 보코하람을 피해 탈출하고 있다. 이들 대부분은 기독교인들이다”며 “보코하람은 자신들이 강탈한 지역들에서 기독교의 존재를 알리는 모든 시설들을 없애고 있으며 이에 따라 많은 교회들이 파괴되고 불에 탔다”고 밝혔다.

보코하람은 지난 8월 기독교 도시인 그워자(Gwoza)를 장악한 뒤 ‘이슬람 칼리프 국가’를 선포했으며, 그 전에 이미 100여 명이 넘는 주민들을 살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코하람은 오바지미 목사가 목회해 온 마이두구리 지역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공격을 펼치며 장악을 꾀하고 있다. 이에 많은 주민들이 지역 밖으로 이주하고 있다고 현지 가톨릭 교구의 기드온 오바소지 신부는 밝혔다.

미국 국무부가 해외 테러단체로 지목한 보코하람은 반서구·반기독교를 표방하는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로 지난 5월 나이지리아 북부 치북 시에서 여학생 300여 명을 납치해 국제사회의 공분을 산 바 있다. 이들 여학생들은 강제로 대원들과 결혼하거나, 성노예로 인신매매 시장에 팔려갔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손현정 기자

이슬람국가(IS) 테러로 8개월간 사망자만 8500명

유엔 보고서 발표... 아동과 여성에 대한 착취도 고발

이슬람국가(IS)의 테러와 폭력, 살해 범죄로 지난 2014년 1월부터 8개월간 숨지거나 다친 이라크 민간인 수가 2만 4천 명을 육박한다고 유엔 보고서가 밝혔다. 이 보고서는 또한 IS가 12세 정도에 불과한 아동들을 병력으로 동원하고 있으며, 어린 소녀들을 포함한 여성들을 성노예로 삼고 있다고도 고발했다.

9일 유엔 인권 고등판무관 사무소(OHCHR)와 유엔 이라크 지원단(UNAMI)이 공동으로 발표한 이 보고서는 각국 정부 기관과 비정부 단체에서 발표한 자료들과 현지 언론 보도, 이라크 내 난민 500명과의 인터뷰 내용을 토대로 작성됐다. 이들 난민들은 자신들이 목격한 IS 대원들의 살해, 납치, 박해 사건에 대해서 증언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IS의 테러로 지난 8개월간 8,493명의 이라크인 민간인들이 사망했으며, 15,782명이 부상을 입었다. 이 가운데 IS가 모술을 점령하고 북부 지역으로 본격적으로 세를 확장해 나가기 시작한 6월 이후인 7월부터 8월까지의 2개월 동안 발생한 사망자 수가 4,692명이었으며, 부상자 수는 11,159명이었다.

보고서는 “실제 희생자 수는 이보다 더 높을 수 있다”며, “특히 음식과 식수,

약품 등의 부족 등 직접적인 폭력에 의해서가 아닌 IS로 인해 발생한 테러 공격의 2차 피해로 인해 숨진 사람들의 수는 이번 집계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증언을 토대로 IS가 12세나 13세 정도에 불과한 어린이들을 전쟁에 동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많은 난민들이 어린 소년들이 정찰하는 모습을 보았다고 밝혔으며, 이들이 거리에서 사람들을 직접 체포하는 모습 역시 목격했다고 밝혔다.

어린이뿐 아니라 여성들 역시 IS에 의해서 ‘가장 극심한 대우를 받고 있는’ 계층이라고 보고서는 고발했다. IS가 기독교를 비롯한 소수종교 여성들을 납치해 성노예로 삼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지난 8월 5일에는 대부분이 기독교인이거나 야지디족인 여성 150명이 IS 대원들이 시리아로 이동하기 직전에 납치되어 성노예로 주어지거나 인신매매 시장에 팔렸다는 증언이 확보됐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또한 종교적 신념에 따라 부르카(전신을 가리는 무슬림 여성 전통의상) 착용을 거부한 소수종교 여성들을 극심하게 구타하거나 살해하는 모습 역시 목격됐다.

손현정 기자



SNS상에 공개된 사진으로, IS가 이라크 기독교인 여성들에게 강제로 부르카를 입힌 뒤에 결박해 끌고가고 있는 모습



LA 지역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Youth예배 오전 11:00

어린이부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토요연합새벽 오전 6:20

한천영 담임목사

갈릴리선교교회

함께웃고 함께우는 공동체

2212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35-6412 / gmcchurch.com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1:00
수요예배 오후 7:00

성인 EM예배 오후 2:00
한어청년예배 오후 2:00
천안예배 오후 3:30
새벽예배 화-토 오전 6시

박현성 담임목사

나성열린문교회

생명과 부흥이 풍성한 교회

3251 W.6th St., LA, CA 90020
T. (213) 383-2600, (213) 413-1600 / laopendoor.org

주일 오후 4시
새벽 오전 5:30 (월-토)
저녁 오후 7:30 (화, 목, 금)

엘리아 김 담임목사

나눔과 섬김의 교회

세상속에 나아가 나누고 섬기는 교회

978 S. Hoover St.#203 LA 90006
T. (213) 272-6031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45

영어예배 1부 오전 9:00
2부 오전 10:00
금요일예배 저녁 8:00

나성한인교회

2241 N. Eastern Ave. Los Angeles, CA 90032
T. (323) 221-9531 / F. (323) 221-0345

1부예배 오전 7:45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30

EM예배 오전 11:30
새벽예배 오전 5:30 (월-토)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

진유철 담임목사

나성순복음교회

성령충만함으로 십자가의 능력을 증거하는 예배공동체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 (323) 913-4499 / F. (323) 913-4494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성경공부 오후 7:30 (화)
오전 10:30 (수)

금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1부 오전 5:30
2부 오전 6:30 (월-금)
오전 6:30 (토)

정우성 담임목사

남가주광염교회

말씀과 기도로 비사하는 은혜공동체

1153 Valencia St. Los Angeles, CA 90015
T.(213)598-0191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유초중부 오전 11:00
중고등부 오전 10:45

대학부 오후 1:00
성경공부 저녁 7:30(목)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6:00(토)

김광삼 담임목사

나성제일교회

소망과 사랑이 넘치는 행복한 교회

213 S. Hobart Blvd., LA, CA 90004
T. (213) 388-7101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후 11:45
성경공부 주일오후 2:00

주일학교 오후 1:00
새벽예배 오전 6:00 (화-토)

김요섭 담임목사

남가주리디머교회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

1938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737-3538 / www.laredeemer.com

주일 예배 오전 11:00
천안예배 오후 1: 45

E.M.예배 주일오전 11:00
심일기도회 수요일 오후 7: 30

이영 담임목사

라성빌라델비아교회

하나님 중심 생활/ 말씀 중심 생활/ 교회 중심 생활

3240 Wilshire Blvd. #265 Los Angeles, CA 90010
T. (714) 319-2234

주일예배 오전 9:00
EM예배 주일 오후 11:00
청년부 예배 주일 오후 1:00
교회학교 주일 오전 9:00

중고등부 예배 주일 오전 9:00
새벽예배 오전 5:30 (월-금)
목요양생예배(목요일) 오후 7시 30분

김경렬 담임목사

산타모니카한인교회

죽도록 섬기는 교회

1520 Pearl St., Santa Monica, CA 90405
T. (310)399-7949 / www.smkc.us

주일예배 1부 오전 8:00
주일예배 2부 오전 9:30
주일예배 3부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월-금) 오전 5:30

한기형 담임목사

나성동산교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교회

2525 W 9th St, Los Angeles, CA 90006
T.(213) 487-3920

1부예배 오전 8:3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전 1:30

금요일기도회 오후 9:00
새벽기도회(월-금) 오전 5:30

정장수 담임목사

올림픽장로교회

세상을 구원하고 행복을 주는 교회 김은발, 이음, 꿈, 열매

3119 W. 6th St. Los Angeles, Ca 90020
T.(213)387-1700 C.(213)500-4737 / olympic-church.org

박승부 장로

1-671 수료생 배출, 현재 7기 수료생 양성 중
- 수기치료의료선교사 양성
- 약품이나 기구없이 손만으로 각종질환치료하는 의술

세계의료선교사육성재단

2836 W. 8th st Los Angeles, CA 90005
T. (213) 381-7273 / (213) 605-2928

1부예배 오전 09:00
2부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10:00

주일학교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 (월-금)

조인수 담임목사

씨니사이드교회

하나님을 기쁘게 주님의 소원을 이루며 예수 안에서 행복한 공동체

1183 S. Hoover St., Los Angeles, CA 90006
T. (213) 389-0691 / F. (213) 389-0694

무료 사회복지 상담 및 대형 (정부 배넛 전반)
음식 보조 프로그램(Food Stamp),메디칼, 입산부 메디칼

이경애 목사, **이은우** 목사

요한 선교교회

gkal44 Yahoo.com Tel: (213) 703-6863
522 N Hobart Blvd Los Angeles CA 90004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1:30

영어예배 오전 10: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매일 오전 6:00

김세환 담임목사

엘에이연합감리교회

100년역사의 미국 본토에 세워진 최초의 한인교회

7400 Osage Ave. Los Angeles, CA 90045
T. (310) 645-3698 / F. (310) 645-3060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오후 천안예배 오후 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금요 구역모임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

현연섭 담임목사

구인성장로교회

실천하는/전도하는/헌신하는 신앙 공동체

4545 W.Washington Blvd. LA, CA 90016
T.(323)428-7878 F.(323)932-0788 / kuinhyou@hanmail.net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20 (월-금)
금요일기도회 오후 7:30

김중호 담임목사

예향선교교회

생명과 부흥이 풍성한 교회

4323 W Pico Blvd. Los Angeles CA 90019
T.(213)281-1196 E. isaacdew@hotmail.com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천안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금)
오전 6:00 (토)

류종길 담임목사

임마누엘선교교회

행복한 성도,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

1818 S. Western Ave., #200, Los Angeles, CA 90006
T. (323) 766-9922 / www.jaimch.com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0:30
새벽예배 오전 6:00 (월-토)

3부예배 오후 1:00
수요/금요일예배 오후 7:30

신승훈 담임목사

주님의영광교회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섬기고 사랑하는교회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T. (213) 749-4500 / F. (213) 749-6700

신현호 담임목사

영어예배: 주일오전 10:30
성경공부: 주일오전 10:30
주일예배: 오전 11:30
금요일예배: 오후 7:30

영어예배: 주일오전 10:30
새벽예배: 화-금 오전 5:30
토 오전 6:30

새하늘 교회

2909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57
Tel. (213) 500-3721 / www.Newheavenchurch.com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중고등부 오전 11:00

금요일기도회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금)
오전 6:30 (토)

이명수 담임목사

청운교회

선교에 흐름, 소.천.초 정신의 흐름,바른교회관의 흐름

4465 Melrose Ave., Los Angeles, CA 90029
T. (323) 667-9920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00
교육부 오전 11:30

EM 1부예배 오전 9:30
EM 2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매일) 오전 5:30

민종기 담임목사

충현선교교회

불러서(Calling), 고치고(Healing), 기르며(Maturing), 맞선다(Fronting)

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T.(818)549-9191 / F.(818)549-9199 / choonghyun.org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금)
오전 6:00 (토)

금요양생기도회 오후 8:00
한글학교주일오전 10:00
유초등부 오전 11:00
중고등부 오전 11:00

박부환 담임목사

한마음제자교회

십자가와 부활 위에 선 한마음제자교회

500 Shatto Pl. #410
Los Angeles, CA 90020 T.(213)321-4433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금요천안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

강지원 담임목사

한우리장로교회

말씀과 예배가 살아있고 치유와 회복이 있으며 선교와 전도하는 교회

1932 10th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02-6709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젊은이 예배 오후 2:22

EM예배 오후 2:00
새벽예배 오전 5:20(월-금)
오전 6:20(토)

김기섭 담임목사

LA사랑의교회

평신도를 배우고, 이민2세를 책임지며, 이민가정을 치유하며 선교영광을 증진하는 교회

5100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36
T. (323)930-0011, (323)935-0011 / www.LAsarang.com

교회 및 선교교회

LA 동부 지역

이희철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영아예배 오후 1:00
어린이예배 오전 11:00

중고등부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성령집회 오후 8:00
금요성경공부 오후 8:00

갯스윌연합교회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교회
904 E D St., Ontario, CA 91764
T. (909) 268-4279 / gwachurch.org

주일예배(주일) 오전 11:30
교회학교(주일) 오전 11:30
토요모임(토) 오전 06:00
문화교실(주일) 오후 01:30
성경연구(수) 오후 07:30

백재준 담임목사

행복한주님의교회
우리는 주님의 교회, 주님의 군대, 주님의 신부입니다
7690 Archibald Ave. Rancho Cucamonga, CA 91730
T. (626) 710-0798 / todad7@hotmail.com

주일예배 오전 11시
주일학교 오전 11시
성경공부 오후 1:3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토요연합새벽기도회 오전 6:00

김성일 담임목사

빅토빌예수마음교회
제자훈련사역과 성령사역이 조화를 이루는 성도공동체
T. (760) 220-3263, (760) 542-9366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00
4부예배 오후 12:50

대학청년부예배 오전 12:50
새벽예배(화-금) 오전 5:30 (토) 오전 6:0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고태형 담임목사

선한목자장로교회
선포하고 가르치는교회
1816 S.Desire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965-3443 / F. (626)965-0404 / sunhanchurch.com

1부예배 오전 7:45
2부예배 오전 9:45
3부예배 오전 11:45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45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금)
오전 6:00 (토)

고송희 담임목사

아름다운교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교회
1717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810-3455 / F. (626) 964-5559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15
3부예배 오전 11:45
4부 청년예배 오후 1:45

EM 1부예배 오전 9:30
EM 2부예배 오전 11:45
수요말씀강해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월-금) 5:30 (토) 오전 6:00

박신철 담임목사

인랜드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되어 사명을 위하여 사는 교회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 (909) 622-2324, F. (909) 622-1480 / inlandchurch.org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창대교회 사랑의 나눔터(매주 토) 오전 10:00~11:00

이훈준 담임목사

창대교회
하나님께 영광!
173 E.Dumas ST., San Bernardino, CA 92408
T. (909) 388-2940

1부예배 오전 7:45
2부예배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45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오전 6:00 (토)
금요기도회 오후 8:00

양성필 담임목사

하나로커뮤니티교회
하나님의 꿈이 있는 공동체
18616 E. Rorimer St., La Puente, CA 91744
T. (626) 912-6600 / www.hanarochurch.org

사우스 베 이 지역

주일예배 오전 11:30
목요예배 오후 7:30분
새벽예배 오전 6:00(수,토)

주일오후 성경공부 오후 1:30
영어예배(토) 오전 11:30
유년주일학교 오전 11:30

안병권 담임목사

가나 교회
1201 W. 255th St. Harbor City, CA 90710
T. (310)986-9797 / ganachurch.hompage.com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7:30

1부예배(EM) 오전 11:00
2부예배(EM) 오후 1:15
중,고등부예배(EM) 오전 11:00
중,고등부예배(EM) 오후 7:30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중보기도회 오후 9~11시

정상용 담임목사

나성금란연합감리교회
3153 W.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 (310) 973-5106 / F. (310) 973-7429

주일예배 오전 11:45
주일학교 오후 12:00
성경공부 주일오후: 2: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45

김영구 담임목사

나눔 장로교회
꿈이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넘치는 교회
3521 Lomita Blvd #202 Torrance, CA 90505
T. (310) 404-6219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1:3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15 (화-금)
주일학교 유/초등부 오전 11:00
주일학교 중/고등부 오전 10:00
성경대려습 오전 10:20

서보천 담임목사

둘로스교회
영혼 구원하여 제자삼는 교회
1925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 (310)951-3153 / douloschurch.com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00

EM 1부 9:30 / 2부 11:00
중/고예배 오전 11:00
유아/유치부예배 오전 11:00

권영국 담임목사

대흥장로교회
땅끝까지 내 증인이되라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310) 719-2244 / dkpc.org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7:20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0: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20

박성규 담임목사

주님세운교회
Vision 7300으로 지역사회와 세계복음화에 힘쓰는 교회
2911 Lomita Blvd, Torrance, CA 90505
T. (310) 325-4020 / F. (310) 325-4025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30
다민족 예배 오후 1:30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기도회 오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이호민 담임목사

가디나선교교회
1044 West 164th St., Gardena, CA 90247
Tel. 213)365-9188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7:30

청년부예배(EM) 오후 1:3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토)

강신권 담임목사

세계성경장로교회
신통(通)하고 인통(通)하며 물통(通)하여 만사형통합시다!
17002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 (424) 257-8169 / F. (424)257-8170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2: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토)

이종용 담임목사

코너스톤교회
이땅의 참교회, 말씀대로의 교회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 530-4040 / F. (310) 530-9400 / cornerstonetv.com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30
4부예배 오후 1:15(EM청년)
5부예배 오후 3:00(KM청년)

장야우예배 오전 10:00
Toddler-Youth 오전 11:30
새벽예배 월-토 오전 5:30am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김바울 담임목사

토렌스 조은교회
www.torrancegcc.org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T. (310) 370-5500 / F. (310) 370-2009

파사 데 나, 라크라센타, 라 캐나 다, 글렌데일, 밸리, 벤추라 지역

주일 예배 오전 11:00
주일 성경공부/새교우반 오후 1: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오전 7:00 (토)

류준영 담임목사

글렌데일한인장로교회
예수님을 붙잡고, 자라는, 건강한 교회!
4002 Verdugo Rd., Los Angeles, CA 90065
T. (323) 254-4012 / gkpcchurch.com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2:00

EM예배 오전 9:30/오전 11:00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5:30
토 오전 6:00

이성현 담임목사

드림교회
하나님의 꿈을 이뤄 드리는 교회
1305 E. Colorado Blvd., Pasadena, CA 91106
T. (626) 793-0880 / F. (626) 793-6412

EM예배 오전 10:00
스페인예배 오전 10:00
한국어 오전 10시 (월로우섬출) 오후 12:00 (본당)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금)
오전 6:30 (토)
금요성경예배 - 저녁 7:45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최호남 담임목사

파사데나장로교회
새 사람, 새 교회, 새 세상을 열어가는 신앙공동체
585 E. Colorado Blvd., Pasadena, CA 91101
T. (626) 795-6252 / F. (626) 584-6544

주일 대예배 오전 11:20
영어예배 오전 10: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6:00(토)

곽덕근 담임목사

은혜와평강교회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
9140 Haskell Ave. North Hills, CA 91343
T. (818) 894-9266

밸리채플 Valley Chapel
주일예배 - 오전 8:00 / 9:45
금요성경예배 - 저녁 7:45
새벽예배 월-금 5:30, 토 6:00
19514 Rinaldi St, Northridge, CA 91326

세리토스채플 Cerritos Chapel
주일예배 - 오전 9:30 / 11:30
목요성경예배 - 저녁 7:45
13808 Imperial Hwy, Santa Fe Springs, CA 90670

비전채플 Vision Chapel
새벽예배 월-금 오전 5:30
12631 E. Imperial Hwy, #F134
Tombesa Fe Springs, CA 90670

최 희 담임목사

주 안에 교회
In Christ Community Church
Tel. (818) 363-5887 / www.In-ChristCC.org

뉴욕목사회 체육대회 및 정기총회 일정 확정

제3차 임실행위원회 열고 42회기 마지막 일정 확정



뉴욕목사회 제3차 임실행위원회가 열렸다.

뉴욕목사회(회장 황동익 목사)가 7일 오전 11시 제3차 임실행위원회를 열고 42회기 마지막 일정인 체육대회와 정기총회 날짜를 확정했다.

이날 임실행위원회에서는 체육대회 날짜를 10월 30일(목)로 결정했으며 정기총회는 11월 24일(월)로 정했다. 통상 뉴욕교협 회장, 부회장 선거가 치러지는 교협 정기총회 전에 열렸던 뉴욕목사회 체육대회를 교협 정기총회 이후로 바꾼 점이 주목된다.

또 이번 체육대회는 남은 제4차 임실행위원회도 겸해 열기로 했다. 이에 따라 뉴욕목사회는 이날 체육대회 일정에 들어가기 전 임실행위원회 회무를 간략히 진행할 예정으로 이날은 다음 회기부터 활동할 신입회원 보고 시간도 갖는다.

이날 임실행위원회에서 회장 황동익 목사는 8월 이단대책세미나와 9월 '시가 있는 묵회' 자작시 발표회 진행상황을 보고하면서 "이단들이 교회에 찾아와 위협을 하고 한인마켓 부근에서 불건전한 유인물을 배포하기도 했다"면서 "목사회원 모두가 연합해 이단에 대처하자"고 강조했다.

앞서 열린 개회예배는 김영환 목사의 인도로 허윤준 목사 기도, 최창섭 목사 설교, 유상열 목사 광고, 정순원 목사 축도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최창섭 목사는 에스라 7장 10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설교했다.

최창섭 목사는 "밥 버포드 목사가 '하프 타임'이라는 책을 썼는데 묵회자들도 묵회에 있어 후반전을 위한 하프 타임을 잘 활용해야 한다"면서 "에스라가 이스라엘의 바벨론으로부터의 두 번째 귀환 당시에 여호와와의 율법을 연구해 준행하고 가르치는 일을 결심한 것처럼, 말씀을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 전할 것, 깨달은 율법을 준행할 것, 율법을 바로 가르칠 것을 기억해야 한다"고 전했다.

김대원 기자

뉴욕교협 회장 후보 이재덕 목사, 부회장 후보 이종명 목사

대뉴욕지구한인교회협의회 차기 임원 후보 마감 결과 회장과 부회장이 모두 단독으로 입후보 했다. 6일 차기 임원 후보자 서류 접수를 마감한 뉴욕교협은 7일 입후보 등록 공고를 내고 회장, 부회장, 감사 후보자를 공지했다.

교협에 따르면 회장 후보는 이재덕 목사(뉴욕사랑의교회), 부회장 후보는 이종명 목사(뉴욕강성장로교회), 평신도 부회장 후보는 박영진 장로(뉴욕성결교회)로 모두 단독으로 입후보 했다.

감사후보에는 김영철 목사(순복음중앙교회)와 허윤준 목사(뉴욕새생명장로교회)가 등록했다.

뉴욕교협 공고에 따르면 올해 투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선거사전등록을 해야 한다. 등록 기간은 10월 10일부터 10월 22일(수) 오후 5시까지다. 각 교회별 총대는 교역자 대표 1인, 평신도 대표 1인으로, 사모는 평신도 대표로 참여할 수 없다. 각 교회당 1년 회비는 120불이다.

뉴욕교협 제40회 정기총회는 10월 27일(월) 오전 10시 뉴욕효신장로교회(담임 문석호 목사)에서 열린다.

김대원 기자

이영훈 목사 초청 뉴욕대성회 준비기도회 열려



이영훈 목사 초청 뉴욕대성회를 2주 앞두고 순복음교단 관계자들이 준비기도회를 열었다.

순복음북미총회(총회장 이만호 목사)와 AG한국총회(총회장 정영호 목사)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이영훈 목사 초청 뉴욕대성회'가 약 2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순복음북미총회와 한국총회 임원들이 6일 오전 11시 뉴욕순복음연합교회(담임 양승호 목사)에서 준비기도회를 열고 은혜로운 성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했다.

이날 준비기도회는 박현영 목사의 사회로 김명옥 목사(한국총회 동북부 지방회장) 대표기도, 아프리카 선교사 일동 특송, 김남수 목사 설교, 김명옥 목사 광고, 이만호 목사(북미총회 총회장) 축도, 정영호 목사(한국총회 총회장) 식사기도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김남수 목사(프라미스교회)는 '더 나은 분향'(히11:8-16)이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하나님의 왕국, 그 분향을 바라보고 이 땅에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다가 갔다"면서 "북미총회와 한국총회의 연합은 하나님의 분향을 향하는 믿음의 선조들과 같은 여정"이라며 연합의 의미를 강조했다.

이날 참석한 묵회자들은 △성공적인 성회가 되도록 △감사 이영훈 목사를 위해 △해상 교단의 연합과 화합을 위해 △뉴욕복음화를 위해 등을 기도제목으로 통성으로 함께 기도했다. 기도는 임용수 목사, 김수익 목사, 이미선 목사, 박자숙 전도사가 각각 인도했다.

이영훈 목사 초청 뉴욕대성회는 오는 10월 21일 오후 8시 프라미스교회에서 열린다. 이에 앞서 오전 9시에는 금강산 식당에서 묵회자, 신학생 등을 대상으로 교역자 세미나가 진행된다. 세미나 강사는 이영훈 목사(여의도순복음교회), 최성규 목사(인천순복음교회), 이태근 목사(순복음분당교회)다.

김대원 기자

www.SuperMirapharm.com

투병생활이 필요없는 치유의 시대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각종 암, 난치병, 아토피 천연 치료제 개발!!

미라팜-22

MIRAPHARM-22

22세기형 생명공학적 첨단 의약품으로 탄생했습니다.

2014년 한국은 면역조절제 개발이 국가적 신약개발 과제로 대두되었다.
이른바 생물학적 면역조절제 개발 프로젝트이다.
인간의 질병의 근본 원인 치료제를 개발하는 게 목표이다.
기존 면역조절제(화학성)의 부작용을 최소화해 안전성을 강화해 나가기 위해
생명공학적인 접근이 필요한 때라서 국가적인 개발 과제로 삼은 것이다.
그런데 본사는 이런 첨단 의약제조기술을 25년 전부터 연구하기 시작하여
생체응답 조절작용제로서의 면역조절제인 미라팜-22를 미국 FDA에
일반의약품으로 등록하고 출시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 FDA에 NDC (OTC Drug) 일반의약품으로 인증 등록 됨
일반의약품 등록번호 NDC No.: 58912-2001-1



FDA 직접 확인해보기
NDC Number를 선택하시고
58912-2001-1 로 검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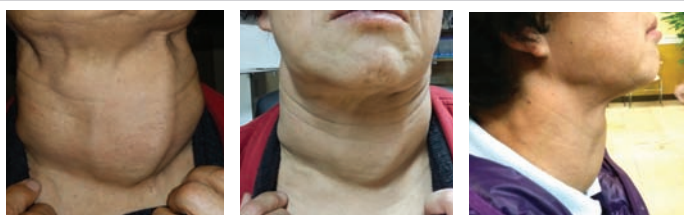
90cap. 300mg/cap. Made in USA

각종 암,
난치병, 아토피 등
질병에 대한 예방 및
치료에 도움을 주는
**MIRA
PHARM
-22**

Mirapharm-22는
Miracle Pharmacy(기적의 약)의 합성어이며
22는 22세기형 첨단신약을 뜻합니다.

100% 천연 물질로 만들었으며 25년간의 연구와 비임상을 거쳐 효과는 확실히 검증이 되었고 부작용의 염려가 없습니다.

- ◆ 14년간의 연구와 11년간의 임상 끝에 미국 FDA에 Human OTC Drug 일반의약품으로 등록됨 ◆ FDA 등록 연구소에서 성분 분석 테스트 결과, 영양 함유물 및 식품으로 안전하다고 인증됨
- ◆ 각종 암, 난치병, 아토피 등 면역결핍에 의한 각종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도움을 주는 약으로 등록 명기되어 있음.
- ◆ 친환경 100% 천연 유기물질을 핵심 재료로 생명공학적 공법으로 특수 가공한 차세대 신개념의 첨단 천연의약품인 면역증강 및 면역조절제
- ◆ 면역증강제로도 치유되기 어려운 자가면역질환들을 면역조절제로써 자가치유할 수 있는 첨단 의약품
- ◆ 어떤 면역증강 건강보조식품보다 탁월한 효능을 입증받아 일반의약품 NDC OTC Drug로 등록되었으며, 수많은 난치병들 중 대부분은 자가면역질환으로써 현존하는 약으로는 치료가 어렵지만 면역조절제인 미라팜-22는 이런 난치병들을 자기와 비자기를 인지할 수 있도록 면역세포에 작용, 항원특이적 또는 비특이적으로 면역반응을 증강시켜 면역계에 작용하여 면역반응을 촉진시킴으로써 면역을 스스로 조절해 주면서 예방 및 치료에 도움을 줌



복용 후 5일 11/5/2013 복용 후 25일 11/25/2013 복용 후 77일 1/16/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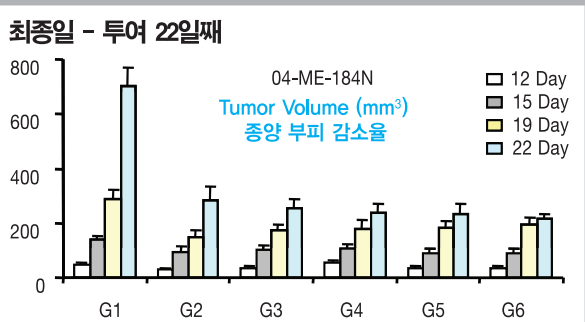
갑상선
말기암
환자의
최근 체험사례



복용전 복용후 99일

생후 5개월부터
28년된
아토피 환자의
치료 사례

암 예방 및 치료제인 미라팜-22가 화학 항암제보다 월등히 뛰어나다고 검증된 비임상 테스트 확인 도표



군 (mg/kg)	Control 무치료	Doxorubisin (2) 화학항암제	Mirapharm-22 (75) 미라팜-22	Mirapharm-22 (150) 미라팜-22	Mirapharm-22 (300) 미라팜-22	Mirapharm-22 (300) 사전 예방처리
22일째 (최종일)	704.6 ±67.2	285.6 ±50.6	251.9 ±36.3	235.3 ±34.6	232.1 ±38.5	214.2 ±20.5
22일째의 억제율 %	0	59.5	64.3	66.6	67.1	69.6
	G 1	G 2	G 3	G 4	G 5	G 6

● 화학요법 항암제보다 월등히 뛰어난 암 부위 감소율의 결과로 천연 치료제 미라팜-22의 비임상 결과에 대한 논문은 추후 학술지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 옆의 도표들은 각각 두 차례 정부 인가 연구소에서 비임상 테스트를 통해 나온 결과들이며 미라팜-22를 더 많이 복용했을 때에 더 좋은 결과를 나타냅니다.

미라팜-22 총판 및 대리점 모집

난치병 및 각종 암치료제로 더욱 유명해진 천연 미라팜-22가 전 세계적으로 수출을 시작하면서 미국내 지역 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에 이 제품을 판매 및 수출하실 분들을 모집합니다.

1. 각 지역 총판업에 관심이 있으신 분
2. 각 지역의 도시의 대리점을 운영하실 분
3. 현재 약국을 운영하시는 분
4. 건강보조식품 센터를 운영하시는 분
5. 의약품 세일즈 전문업을 하시는 분
6. 건강보조 제품 세일즈를 하시는 분

HQ 헬스 / HQ 바이오텍, INC.

833 S. Western Ave. #1, L.A., CA 90005

L.A. 본 점 (213)365-2100

세리토스점 (562)760-2359

월-금: 10am-7pm, 토:10am-5pm



“신혼 끝난 한국교회, 미국의 패턴 따르지 말라”

필립 안시 초청 컨퍼런스 〈교회, 나의 사랑 나의 고민〉

필립 안시 초청 컨퍼런스 ‘교회, 나의 사랑 나의 고민’이 1,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9일 서울 아현성결교회에서 개최됐다. 5년 만에 방한한 필립 안시는 한국교회에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다. 안시는 “여러 분이 기도하는 사람으로 남는다면, 한국교회에는 희망이 있을 것”이라며 “많은 연구기관이나 조사위원회에서 한국교회의 암울한 미래에 대해 이야기하지만, 다행스러운 것은 성령께서는 그 보고서를 열심히 읽지 않으신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안시는 “기자로서 세계 어디를 가든 복음의 소식을 듣고 전 세계를 누비는 한국 선교사를 만날 수 있었다”며 “저는 미국보다는 한국교회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더 크다”고 전했다. 그는 “한국교회야말로 한국에 뿌리내린 복음으로 인해 지난 몇 년간 열매를 조금씩 보고 있지 않는가”라며 “이 교회에 소망을 거는 이유는 기도하는 백성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또 “항상 기도하라”며 “아시아뿐 아니라 전 세계 열방에 빛이 되어 달라”고 축복했다.

필립 안시는 “교회에 대해 걱정하고 말하는 일은 어렵지 않고, 지도자들이 미래에 대해 걱정하고 불안해하는 것도 이해가 된다”면서도 “그때 마르틴 루터의 ‘문제가 있다면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걱정하시게 하라’는 말을 기억하라. 물론, 아시다시피 하나님은 걱정하시는 분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안시는 “저도 미국이나 한국의 교회에 대한 걱정이 있지만, 동시에 큰 희망이 있다”며 “성령님은 바람 같아서 눈으로 볼 수도 예상할 수도 없지만, 성령의 바람이 불면 어떠한 일이든 반드시 일어나게 되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그는 “우리 교회가 ‘무엇’에 관심을 갖기보다, ‘누구’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전 세계 곳곳을 옮겨다니며 진행되는 현상과 관련해 “하나님께서 마치 여행 가방을 챙기고 이동하시는 듯했다는 것”이라며 “그때 내린 결론은 ‘하나님께서서는 우리에게 강요하시는 분이 아니라, 조용히 짐을 싸서 자신을 필요로 하는 곳으로 찾아가시는 분’이라는 것”이라고 했다.

이를 결혼한 부부의 친밀도에 비유하기도 했다. 안시는 “어떤 지역을 가면 (하나님과과의 관계가) 마치 신혼처럼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며 사는 모습을 보는데, 그런 믿음의 단계를 접하면 저도 도전을 받는다”며 “유럽은 이혼을 앞둔 부부처럼 한때 열심히 믿었지만 지금은

피곤하고 지쳐서 다른 곳에 관심이 있고, 제가 사는 미국은 25주년 은혼식을 맞는 부부처럼 여전히 혼인관계는 맺고 있지만 불꽃 튀는 열정이 사라진 것 같다”고 전했다.

이후 “한국교회를 향해 던지고 싶은 질문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 어느 단계에 와 있는가’ 하는 것”이라며 “제가 보기에 신혼은 끝난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택하셔서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려 하신다고 저는 믿고 있다”며 “하지만 미국의 패턴을 따르지는 말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선지서를 잘 읽어보면, 이스라엘의 암흑기는 경제적 빈곤기가 아닌, 모든 것이 풍요로울 때 찾아왔다”며 “미국과 유럽처럼 성공을 거두고 재정적으로 풍요로운 국가들은 더 이상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기 시작했다. 하나님은 당신을 필요로 하시는 곳을 찾으시기 때문에, 절망적 위기는 이처럼 잘 될 때 찾아온다”고 했다. 그는 “한국교회도 이미 성령이 바람처럼 강하게 공을 거두고 재정적으로 풍요로운 국가들은 더 이상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기 시작했다. 하나님은 당신을 필요로 하시는 곳을 찾으시기 때문에, 절망적 위기는 이처럼 잘 될 때 찾아온다”고 했다. 그는 “한국교회도 이미 성령이 바람처럼 강하게 공을 거두고 재정적으로 풍요로운 국가들은 더 이상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기 시작했다. 하나님은 당신을 필요로 하시는 곳을 찾으시기 때문에, 절망적 위기는 이처럼 잘 될 때 찾아온다”고 했다.

한국교회 지도자들에게는 “성령의 바람이 어디로 부는지, 성령님께서 어디로 이동하시는지 주의 깊게 봐야 한다”며 “그리고 한국교회 안에 계신 여러분들은 너무 일을 많이 하시는데, 한국교회 지도자들에게 단 하나의 메시지만 전할 수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시간을 좀 낭비하면서 사세요’라고 하고 싶다”고 했다. 그는 “하나님과의 시간은 결코 낭비되는 법이 없다”며 “우리는 1주일을 살아가면서 너무나 하는 일이 많아, 잠잠히 하나님 앞에 있는 시간을 놓칠 때가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탈북민들을 통해 북한의 현실과 실상을 듣게 되면, 오늘날 한국이 얼마나 큰 복음의 혜택을 누리고 있는지 알게 될 것”이라며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큰 나무가 되고, 열매를 맺어 공중의 새들이 깃드는 복음의 능력은 개인, 사회와 공동체, 전 사회를 통틀어 변화시킬 수 있다. 그 일이 한국에서도 일어나고 있음을 저는 목격했다”고 말했다.

필립 안시는 “집회를 마치고 돌아가서서, ‘세계에서 가장 덜 부패한 나라’, ‘세계에서 가장 여성을 평등하게 대우하는 나라’, ‘자유가 가장 많이 보장되는 나라’ 등의 상위 20개국을 살펴보시라”며 “이들 중 19개국은 기독교가 뿌리내린 국가들일

것”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한국교회 성도 여러분들도 실망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다”며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일으킬 역사에 대해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을 잃지 말라”고 격려했다.

‘본질’에 초점을 맞추라는 조언도 잊지 않았다. 안시는 “돌보기를 쓰면서 깨달은 것은, 한가운데는 굉장히 또렷하게 보이지만 초점에서 벗어난 변두리는 흐릿명명해진다는 사실”이라며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신앙의 돌보기에서 중심이 되셔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저도 명색이 기독교 작가이지만, 신앙의 변두리에서 많은 시간과 관심을 쏟고 있는 모습이 있었다”며 “하나님, 내가 고통당할 때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처럼 비본질적 질문들과 계속 씨름했지만, 돌보기의 초점을 예수 그리스도께 맞추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기도’에 대해 “하나님께서 어차피 다 아시는데 뭐하러 기도하는가” 또는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에 대한 질문과 고민이 있을 수 있다”면서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누군가의 병을 고치고 필요를 채워주셨던 것만큼 기도하는 시간을 따로 가지셨고, 중요한 일을 앞두고는 밤새 기도하시기도 했다”고 답했다. 그는 “언제든 신문을 펴서 확인해 보라.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듯 ‘뜻이 하늘에서 이뤄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뤄지고 있는가? 여전히 아직 응답되지 않은 부분들은 있다”고도 했다.

고통과 관련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용어에 대해서는 한 일화를 공개했다. 안시는 콜로라도 주에 거주하는데, 지난해 역사상 가장 큰 화재와 홍수가 있었다는 것. 그런데 한 라디오에서 어떤 목회자가 ‘홍수와 화재가 동성연애 입법과 같은 시기에 일어난 일이 우연일까?’라고 했다. 이와 관련, “너무나 많은 질문들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요즘 ‘하나님의 뜻’이라는 단어를 쉽게 쓰지 않고 ‘하나님의 원하심’이라 이야기한다”며 “소경이나 앓은뱅이를 보면서 사람들은 ‘누구 죄 때문이냐’고 물었지만, 예수님은 그럴 때마다 ‘그들의 죄가 너희보다 중하지 않다’고 답하셨다”고 했다.

또 “예수님은 불쌍하고 고통당하는 이들을 위해 눈물을 흘리신다. 이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다”며 “그러면서 그동안 가졌던 고통에 대한 ‘신학의 변두리’를 버리기 시작했고, 예수님께 모든 초점을 맞췄다”고 고백했다.

기독교의 ‘독특성’으로는 “모든 종교는 신(神)이 선(善)한 사람을 좋아하고 악(惡)한 사람을 배척한다고 말하지만, 기독교는 우리가 사랑받을 자격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불구하고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충분히 사랑하고 계시다고 말한다”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 몇 단계를 올라가야 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그는 “보통 신앙의 열정이 있을수록 ‘나는 이제 괜찮고 은혜가 될 필요 없다’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사람을 ‘은혜가 필요한데 받는 사람’과 ‘은혜가 필요하네 거부하는 사람’ 둘로 구분하셨다”며 “은혜는 거저 주시는 선물이지만, 받으려면 반드시 두 손을 펼쳐야 한다. 우리가 주먹을 쥐고 있다면, 그 은혜는 그대로 바닥에 떨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필립 안시는 “교회는 제 친구가 말한 것처럼 ‘아주 관찮은 사람이 여러 관찮은 사람들 앞에 서서 더 관찮은 사람이 되라고 격려하는 곳’이 아니라, ‘목이 말라 죽어가는 이들에게 생수를 주는 곳’이 돼야 한다”며 “이런 은혜의 개념은 세상의 어느 종교에도 없다”고 했다. 그는 “모든 종교 지도자들은 선을 강조하지만,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인임에도 사랑하신다고 말한다”며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평생 악하게 살기를 원하신 않으니 의의 열매를 맺길 원하신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도 만나 주신다”고도 했다.

기독교의 또 다른 독특성으로는 ‘하나님이 겸손하신 분’이라고 전했다. 안시는 “모든 종교는 자신들의 신이 얼마나 힘 있고 크고 강하기를 말하지만, 기독교의 하나님은 겸손하고 자신을 낮추시는 분”이라며 “위대하고 크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작아지셨느냐 하면, 우리 안에 거하실 정도로, 우리가 얼마든지 하나님을 끌 수 있고 소멸할 수 있고 근심시킬 수 있을 정도로 낮아지셨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는 대형 화면만을 보지 말고, 조그마한 ‘자막’ 같은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라고 전했다. 안시는 “우리가 하루종일 세상에서 보고 듣고 접하는 수많은 메시지들은 다



필립 안시

거짓이고 속임수”라며 “성경은 부자가 아니라 가난한 자들이, 믿음 때문에 박해받고 애통하는 자들이 복을 받는다고 했다. 정상에 있다고 생각하는 이들은 낮아지고, 밑바닥이라 생각하는 인생은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큰 자가 되리라고 했다”고 했다. 그는 “대형 화면을 통해 나오는 가치와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의해 모든 것이 결정되는 것”이라며 “그것은 하나님은 좋은 사람뿐 아니라 죄인들도 사랑하신다는 것”이라고 고백했다. 또 “하나님은 자신을 낮추시되 끝까지 낮추셔서 우리를 품어주시는 분으로, 그 본질은 사랑”이라며 “여러분들이 그 부르심에 충성한다면, 하나님 나라의 개척자가 될 것이고 성령의 위대한 바람이 다시금 이 민족 위에 강하게 불어올 것”이라고 역설했다.

언론인 출신의 작가 필립 안시(Philip Yancey)는 ‘리더스 다이제스트’, ‘새터데이 이브닝 포스트’ 등을 거쳐 ‘크리스천너티뷰데이’ 편집장을 지냈다. 특히 ‘고통’과 ‘은혜’의 문제에 천착했고, 생생한 필체로 다양한 작품을 남기는 등 ‘회의자들의 안내자’로 불린다.

주요 작품으로는 주제별로 △은혜: 〈필립 안시, 은혜를 찾아 길을 떠나다〉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고통: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와 〈내가 고통당할 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고통이라는 선물〉 △기독교 변증: 〈내가 알지 못했던 예수〉와 〈단단한 진리〉, 〈수상한 소문〉 △성경: 〈필립 안시의 성경을 만나다〉와 〈예수님이 읽으신 성경〉, 그리고 컨퍼런스 주제와 같은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 등이 있다.

이대웅 기자

당뇨! 당뇨는 원인치료가 해답입니다!

프로지(PRO-Z)를 대략 3개월에서 6개월 이상 복용하시면 췌장에서 정상적인 인슐린 분비를 가능케 해 당뇨병에서 해방됩니다. 프로지(PRO-Z)는 근육세포 내에 당 대사를 거부하는 근본원인을 개선하여 혈당을 스스로 조절하는 획기적인 제품으로 정부 연방 병원인 USV.A. Hospital에서 47명의 당뇨환자를 대상으로 12주 동안 임상시험을 실시한 결과 당화혈색소(HbA1c)가 평균 22% 감소, 70% 이상 환자에서 혈당수치가 29% 개선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현재 미국의 병원 2곳에서는 당뇨치료 보조제로 처방하고 있습니다.

- ✓ 한국 30만명 판매
- ✓ 미국 출시 기념 SALE

재미과학자 송문기 박사
40여 년간 당뇨 연구를 해온 대한민국 대표과학자로 한국인 최초로 미국연방 정부 지원을 받아 당뇨 신약개발을 위해 FDA 3차 임상시험을 진행하는 분야 최고의 전문가입니다.



전, UCLA 의과대학 연구교수, 미 재향군인병원 수석연구원
세계3대 인명사전 Marquis Who's Who 등재

당뇨병의 원인

아연은 우리 몸의 대사작용을 하는 필수 미네랄로 인슐린의 저장 및 분비에 필수적인 성분입니다. 아연이 부족하면 췌장 베타세포의 인슐린 분비 기능이 저하되어 당뇨병을 유발하게 됩니다. 췌장 베타 세포의 기능 복원을 개선하는데 PRO-Z가 해결해 드립니다. 현재까지는 수만 종류의 당뇨약이나 인슐린으로 혈당유지에 그쳤으나 PRO-Z는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며, 분비된 인슐린이 제 기능을 하도록 도와 내 몸에서 스스로 혈당을 조절하게 하는 당뇨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는 솔루션입니다.



100% 천연성분



PRO-Z USA
미국 공식 판매처

타주 대리점 및
프로자셀러모집중

213.434.1170
621 S. Virgil Ave. Suite 260 Los Angeles, CA 90005



클레어몬트 신학대학원

목회학 박사과정

갈등, 치유, 변화를 위한 실천신학
Doctor of Ministry (D.Min.)

Practical Theology of Healing, Reconciliation and Transformation in Korean Contexts

클레어몬트 신학대학원은 미국에서 최초로 목회학 박사과정을 만들고 목회학 박사 학위를 수여한 신학대학교입니다. 또한 클레어몬트 실천신학 목회학 박사과정은 미국 교육부의 대학학력인증기관인 “서부대학기관협회” (Western Association of Schools & Colleges)와 미국과 캐나다의 신학대학교의 공식학력을 인증하는 기구인 “북미신학대학교협의회” (Association of Theological Schools)로부터 여러가지 심사와 검증을 거쳐서 공식적으로 학력인증을 받은 우수한 프로그램입니다.

미국의 신학대학들에서 운영하는 다양한 목회학 박사학위 프로그램이 있습니다만, 이렇게 대표적인 두 곳의 학력인증 기관에서 학력인증을 모두 받은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클레어몬트 신학대학원”의 실천신학 목회학 박사과정은 그 학사과정, 교수진, 그리고 프로그램의 질적인 우수성을 공식적으로 인증 받은 프로그램입니다.

클레어몬트의 실천신학 목회학 박사과정은 통합적 상황분석을 강조함으로 개인의 문제만이 아니라, 사회문화 속에서의 개인에 대한 이해, 또 갈등의 해결책을 제시할 것입니다. 이 학위 과정은 학생들에게 갈등과 치유에 대한 비평적이며 조직적인 이해, 이론과 실천의 접착점에 대한 비평적 고찰, 임상과 신학의 통합된 기술과 능력을 얻도록 도울 것입니다.



입학설명회

날짜: 2014년 10월 30일 (목) 오전 10:30 - 12:00

장소: LA복음연합감리교회

1200 S. Manhattan Pl. Los Angeles, CA 90019

Office: 323.641.0691 (영육구원)

담임: 이영성 목사

문의: 이효주목사 (973-713-3009)

입학원서마감일

2015년 1월 입학: 2014년 9월 1일까지

2015년 5월 입학: 2015년 2월 1일까지

입학조건

- M. Div. 학위나 Th. M.
- 각 학위 성적 (GPA) 3.25 이상 선호
- M. Div. 나 Th. M. 학위 취득 후 수년의 Full-Time 목회경력
- 본 과정은 한인 교수가 강의하거나 미국인 교수와 한인 교수가 함께 강의하기 때문에 토플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기타

- 수업료: 학점당 미화 600달러, 2014년 5월 기준 (3학기 동안 24학점 + 논문4학점)
- 미국과 한국으로 오가는 모든 여행비용은 학생들이 각자 부담
- 한국어로 논문을 쓸 수 있습니다.
- 기독교대한감리회 교역자는 학과과정을 마친 후 교단에서 수여하는 “목회최고지도자과정” 증서를 받습니다.
- 아래 웹사이트에서 필요한 자료를 다운로드하고 on-line으로 입학원서를 제출하기 바랍니다.
<http://www.cst.edu/admission/apply-now/>

For more Information : www.cst.edu

이효주 목사 (Associate Director)

koreandmin@cst.edu/ Tel. 1-973-713-3009



[기독교 신앙의 보편성과 공공성 변증] 86세로 별세한, 현대신학의 거장에 대한 추념글

볼프하르트 판넨베르그가 현대신학에 남긴 공헌 (3)

- I. 희망의 신학자라기보다는 보편성 내지 공공성의 신학자
- II. 보편사를 신학의 지평으로 제시
- III. 역사적 예수에서 출발하는 기독교론
- IV. 보편학문으로서의 신학 정립 시도
- V. 미래 우위의 사상가: 종말론적 존재론
- VI. 오시는 삼위일체 하나님 증언

판넨베르그는 미래로서 다가오는 하나님을 삼위일체의 하나님으로서, 고전적·철학적 유신론의 하나님과 구별한다. 철학적 유신론은 하나님을 “그 자체 안에 구별이 없는, 하나의 실체로서의 최고 존재의 정적인 통일”이며 “인간의 역사 밖에 있는 신적 사물”로 표상한다. 그러나 삼위일체의 하나님은 “역사적 과정과 합치”하며, 미래의 힘으로 과거의 세계와 현재의 세계를 통합하여, 자기 생명 안에 영원히 참여하게 하는 구속의 하나님이다.

판넨베르그 삼위일체론의 근본적 특징은 “종말론적인 창조론”으로 표현된다. “미래의 존재론적 우위” 개념에서 보는 바와 같이, 판넨베르그는 과거와 현재를 다가오는 신의 미래에서의 결과로 이해하는 창조론을 시도한다. 하나님의 존재도 “원초적 과거와 관계가 아니라, 종말과의 관계에서 수행되는 창조 행위”에서 파악된다. 하나님의 구속하시는 사랑의 행위로서의 미래의 창조적 도래는 “삼위일체적 언어에 비추어서 해명될 수 있다”(Pannenberg, *Theology and the Kingdom of God*, Edited by Richard John Neuhaus, Philadelphia: Westminster, 1976, 이병섭 역, 『신학과 하나님의 나라』, 98.). 하나님은 “예수를 통해 존재하셨고 또 현재도 존재하고 있으며” “자유와 생명을 주는 성령으로서 세상에 대해서 현재하신다”(Pannenberg, 『신학과 하나님의 나라』, 98.).

삼위일체적 구별은 하나님의 미래와 하나님의 현재의 차이에 기초되고 있다. 이 삼위일체의 세 위격은 하나님의 통일성에 포괄되어 있다. 따라서 삼위일체론은 철학적 신 관념에 덧붙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선포한 “오고 있는 하나님나라의 실재에 대한 궁극적 표현”(Pannenberg, 『신학과 하나님의 나라』, 99.)이다.

여기서 판넨베르그는 삼위일체론을 철학적 유신론이 아니라 성서적 증언에 기초하여 이해하고자 한다.

VII. 신학과 자연과학과의 대화

볼트만의 실존론적 신학이나 바르트의 말씀신학이 계시와 역사, 계시와 자연을 분리시킨 시도에 대하여, 판넨베르그는 양자를 다시 연결시키고 자연과학을 신학과 대화로 가져왔다. 이는 그의 공헌이다.

1) 과학의 장(場)을 신학으로 이끌어냄

그는 1960년대부터 신학과 자연과학의 대화를 시도해 왔으며, 보다 본격적인 이 분야의 글들이 1980년대 후반 이후부터 나왔다. 그는 신학 방법론 문제를 관심있게 연구했으며, 기독교 신학과 자연과학의 상호작용에 대해서까지 논의를 확대시켰다.

판넨베르그의 신학적 경력의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은 신학을 보편학문으로 볼 수 있다는 옹호다. 그는 신학이 철학, 역사학, 자연과학과 교류할 수 있다고 본다. 이 분야에 있어서 그는 만유재신론(panentheism)을 수용하는 영국 옥스퍼드의 양자물리학자 존 폴킹혼(John Polkinghorne)과, 하나님의 행동이론가 아더 피콕(Arthur Peacocke), 그리고 여러 학자들과 대화를 하였다.

판넨베르그는 근대에 들어와 사이가 어긋난 종교와 과학은, 철학의 중재를 통해 다시 만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간·시간·질량·힘·장(field) 등과 같은 자연과학의 기본개념은 철학적 개념에 바탕을 둔 것인데, 그 철학적 개념은 사실 기독교 신학이 오랫동안 밀접한 관련을 맺어온 것”임을 상기시켰다. 임마누엘 칸트는 “자연과학이 측정하는 부분적 공간과 시간은 무한한 공간과 무한한 시간을 상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으며, 이 영원성과 광대함은 신학적으로 바로 신의 속성과 연결된다는 것이다.

판넨베르그는 현대 과학의 장(場) 개념을 신학적으로 끌어들이고자 하였다. 그는 모든 것을 결정짓는 실체로서의 하나님을, 미래에서 이 세계에 대하여 역사하는 신적 장(the divine field)과 동일시한다(Grenz & Olson, *20th Century Theology*, InterVarsity Press, 1992, 신재구 역, 『20세기 신학』, IVP, 1997, 319). 기계적인 근대 과학이 하나님을 “육체가 없고 따라서 작용도 할 수 없는 존재”라고 해서 추방한 데 반해, 장(場, field) 개념은 전기장이



김영한 박사
기독교학술원장

나 자기장 같이 물질이 매개하지 않는 힘의 작용을 인정한다. 그는 “장 개념이 무소부재(無所不在)와 같은 신학적 개념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판넨베르그의 신학적 출발점은 역시 창조주로서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결정하는 실체로서 장(場, field)을 구성하며, 존재하는 모든 사물은 이 장에서 나오고, 자연과 역사의 모든 창발성 역시 이 장 안에서 나온다.

이렇게 신을 “모든 것을 결정하는 실체”로 이해하면, 인간의 모든 경험 영역이나 탐구 분야에서 신을 배제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된다. 신학이 이런 신을 사유의 대상으로 삼는다면, 신학은 필연적으로 신을 인간의 역사뿐만 아니라 자연과학이 대상으로 삼는 자연까지 결정하는 힘, 말하자면, “모든 실체가 의존하고 있는 힘” 또는 “모든 것을 결정짓는 힘”(Pannenberg, *Introduction to Systematic Theology*, 8)으로 생각하게 된다. 그래서 판넨베르그가 보기에, 신학은 자연과학 뿐만 아니라 어떤 학문 분야와도 분리될 수 없으며, 오히려 긴밀한 연관성을 갖게 된다.

장(場)이란 하나님의 피조세계에 대한 창조주의 통치권과 관련되어 있다(Pannenberg, *Theology and the Kingdom*, 55-56). 이러한 장, 피조물이 그 안에서 살며 그것에서 생명을 공급받아 사는, 환경적 네트워크로서의 하나님은 바로 성령이다(Pannenberg, “Theological Questions to Scientists,” *Zygon* 16(1981), 65-77). 무한한 공간이란 하나님의 광대하심과 무소부재하심을 가리키며, 시간을 전제로 보는 통찰은 하나님의 영원성을 가리킨다(Pannenberg, *Introduction to Systematic Theology*, 48). 하나님은 창조와 역사가 존재하는 장이다. “그의 피조세계에 계시는 하나님의 영의 임재는 창조적 임재의 장, 곧 유한한 존재의 사건들을 하나씩 방출하는 힘의 포괄적인 장으로 묘사될 수 있다”(Pannenberg,

Introduction to Systematic Theology, 49).

포괄적인 장으로서 하나님은 이 세계 안에 내재하는 영으로 피조물들에 생명을 불어 넣으시며, 동시에 이 생명의 과정을 초월하신 분으로 남는다. 하나님의 초월성은 세계의 미래적 정향에 기인한다. 영으로서의 하나님은 역사의 유한한 사건들에 대한 의미를 제공하는 전체로서 기능한다. 모든 역사가 향하여 가고 있는 실재인 종말은 매 순간을 초월한다. 순간에 시간과 영원은 상호 연관되어 있다. “영원은 바로 미래를 통하여 시간 속으로 들어온다”(Pannenberg, *Introduction to Systematic Theology*, 49).

판넨베르그는 자연 법칙을 창발성(emergence: 복잡한 체계 안에서 의미있는 질서가 자발적으로 돌연히 출현하는 현상)을 기초로 발생하는 자연 과정 속에서 특별히 통일성을 서술하는 것으로 본다. 자연 법칙은 창발적인 사건들을 시간의 과정을 생략하고, 그 사건들 사이에 공통으로 존재하는 규칙성과 통일성, 구조적 단일성을 다룬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자연과학은 창발적인 사건들을 공식화시킨 결과인 법칙성만을 다루기 때문이다. 비록 자연과학의 법칙성들이 상당한 정확도로 현실을 기술하는 데 적용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근사값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는 자연 법칙의 이런 성격을 자연과학이 지닌 한계라고 평가한다.

신학은 일차적으로 자연 현상이 창발적 국면을 지니고 있다는 데 관심을 갖는다. 신학적 관점에서 보면, 모든 자연 현상들은 신의 자유 행위에 따르는 일회적이고 비가역적 사건으로, 그래서 창발적 사건이다.

2) 창발적 진화론

과학적 토론을 신학에서 완전히 철수시킨 유명한 인물은 칼 바르트(Karl Barth)이다. 그는 그의 저서 『교회교의학』의 창조론 서문에서, 신학적 창조론은 과학적 이론들에 원칙적으로 관여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주장은 신정통주의적 교회들, 특히 한국의 보수적 교회들에 막대한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근대 이후에는 과학 이론들이 그 타당성을 상당히 인정받게 되어, 과학이 설명하는 사실들은 타당한 것으로

인정하는 것이 상식이 되었다.

판넨베르그는 그의 저서 『자연신학』에서 “만일 신학자들이 하나님을 실재 세계의 창조주로 인식하고자 원한다면, 과학이 기술하고 있는 세계를 우회할 수는 없다”고 말하고 있다. 그는 19세기 영국 신학자 찰스 고어가 시도한 유신론적 진화론을 높이 평가하면서, 창조론과 진화론 사이의 화해를 모색했다. 그에 의하면 “구약성서에 나오는 창조 증언들은 성서를 쓴 BC 6세기 바빌로니아 사회의 자연에 대한 제한된 지식에 의존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자유로운 창조라는 핵심 내용을 전달하는 데 문제 될 것이 없다” “진화의 과정에서 무언가 새로운 것의 갑작스런 출현은,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전혀 새로운 것을 창조하신다는 믿음과 공존할 수 있다” 생명이란 무수한 무생물분자가 집합된 조직에서 나타나는 창발적인 행동(the emergent behavior)이라고 본다.

판넨베르그는 신학의 영역을 전 우주사로까지 확장시키고, 하나님과 자연의 동반관계, 곧 계속된 창조(Creatio continua)를 기독교 창조 신앙의 본질로 이해한다. 자연과정 속에서 창발성을 인정하며, 자연실재의 비가역성(非可逆性)을 말하는 판넨베르그는, 이것 모두를 하나님 개념과 관계시켜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성서의 하느님이 우주 창조주인 한 그 하느님에 대한 진술 없이는 자연과정이 성립될 수 없을 것이며, 반대로 자연이 성서적 하느님에 대한 진술 없이도 이해된다면 하느님은 우주 창조주가 될 수 없다”는 것이 판넨베르그의 주장이다(이정배, 판넨베르그의 자연신학 연구, 신학사상 119권, 150p ~ 176p 1227-4879 KCI 권호별 논문보기, 한국신학연구소 [2002년]).

창발적 진화론 주장에 의하여 우주의 자연적 과정을 하나님의 지속적 창조과정과 연결시킴으로써, 자연과학과 신학을 연결시킨 점에 있어서 그의 사유는 주목할 만하다. 그러나 “이러한 판넨베르그의 창발적 진화론이 개혁주의 신학과 성경이 말하는 무에서의 창조 사상과 갈등 없이 연결될 수 있는지?” “또는 하나님의 존재를 자연 과정에 개입시키는 사유는 만유재신론의 사유로 떨어지지 않는지?”라는 질문은 앞으로 논의되고 음미되어야 할 과제이기도 하다.

(계속)

Sales • Rental • Service • Free Estimate • Supplies

1¢
최저 1장

**복사기 판매
렌탈 서비스**

FMB RENT PROGRAM

- SERVICE는 물론 TONER, DRUM ROLLER등 모든 PART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정기적으로 SERVICE를 실시합니다.
- 4시간내 A/S를 신속 처리

복사기

무료

최신식 디지털
COLOR
 COPY MACHINE
칼라카피어 렌트전문!

**칼라
카피**

FBM

First Business Machines, Inc

전화문의 **(800)582-3321 / (562)802-9044**

Fax : (562)802-8094
 13245 E. Rosecrans Ave., Santa Fe Springs CA 90670

www.fbmcopiers.com

북새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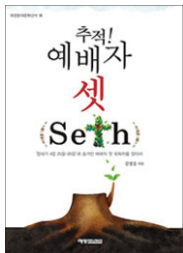
책으로 통하는 새로운 세상

신간추천

추적! 예배자 셋(Seth)

김철웅 | 예영커뮤니케이션 | 190쪽

예영의 현대문화신서 18번째 시리즈로, 가인과 아벨 이후 아담과 하와의 아들로 태어난 '셋'과 '예배'를 연계하고 있다. 죽은 아벨 대신 태어난 셋이, 무너진 예배 회복의 첫 출발자가 되어 위대한 신앙의 가계와 혈통을 이룬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저자는 예배 회복에 대해, '그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와 이름을 불렀더라(창 4:26)'는 말씀을 통해 중요한 단서를 찾아 나가고 있다.



복 일 밥 씹

조현삼 | 생명의말씀사 | 232쪽

저자는 창세기 1장을 통해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시고 주신 네 가지를 복·일·밥·씹이라고 말한다. 일상에서 매일 경험할 수 있고 비기독교인들과 다를 바 없는 것들이지만, 반복되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 왜 복·일·밥·씹을 주셨는지, 이 네 가지를 받은 우리는 삶 속에서 이를 어떻게 다뤄야 할지 등을 전해준다.



교회교육 코칭

한춘기 |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 214쪽

총신대 기독교교육학 교수인 저자는 한국교회 부흥과 회복의 열쇠가 '교회교육'에 있다고 주장한다. 이 교회교육의 목표는 '하나님의 마음을 닦아 회복해 가는 것', 교회가 해야 할 일도 '하나님의 마음을 닦은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을 길러내는 것'이어야 한다고 말한다. 책에서는 교회교육의 개념과 목표를 정의하고, 바람직한 교사상과 자질 등을 예수님과 사도 바울에게서 찾고 있다.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김지철 | 아드폰테스 | 280쪽

17년간 성서학 교수로 재직하다 소망교회 담임목사로 부임한 저자가 성경의 핵심 주제 17가지를 뽑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 밝히고 있다. 독일 성서학자 게르트 타이센의 <성서의 근본 모티프>에서 제시한 창조·기적·심판 등 14가지 주제에 생명·고난·감사를 더했다. 기본적으로는 쉽게 답을 내기 어려운 질문들에 지혜로운 답을 제시하면서 신앙을 되짚는다.



REVIEW

이 시대의 에베소에 사는 성도들에게

노진준 목사의 열정적인 도전과 위로 <회복하라>

LA 한길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는 노진준 목사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법'에 대해 설교한 7편을 묶었다. 이 설교는 지난해 총신대 신대원 개강수련회에서 전한 것이다.

책에서 저자는 복음(롬 5:12-19), 은혜(엢1:3-14), 교회(엢1:20-23, 2:11-22), 제자도(눅16:19-25), 기도(마7:7-11), 전도(엢3:1-13), 가치관(엢3:14-21) 등 7가지 본질의 회복을 이야기한다.

첫 번째 설교인 '복음의 회복'을 살펴보면, 저자는 "나를 사랑하셔서 나의 필요를 채우시고, 무조건 나를 받아 주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원한다면, 그건 복음을 모르는 것"이라고 말한다. 복음을 깨달으려면 먼저 '죄'에 대해 알아야 하는데, 죄는 스스로 인생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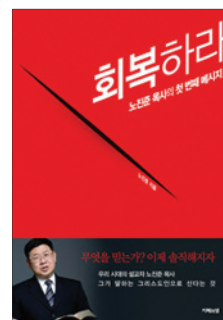
주인이 되어 자신을 행복하게 만들어 보겠다는 것이다. 그것이 불순종의 죄, 곧 원죄이다.

"본질적으로 죄란,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주인이심에도 불구하고 주권적인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을 거부하고 스스로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그래서 불행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이제 다시 하나님에게 나아와 하나님의 주 되심을 인정하고, 그의 백성이 됨으로써 진정한 인간 실존의 의미를 회복하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와 행복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이란 무엇인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단순한 지적 동의(intellectual agreement) 정

도가 아니다. 야고보 사도의 말을 보면, 그것은 '마귀도 아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시라는 진지한 고백이 뒤따라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이 되실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사실이 좋은 소식, 바로 복음이다.

"모든 인간은 죽어가고 있고 죽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고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말은, 살릴 수 있는 길을 말하는 것이지 죽이고 살리는 길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 믿어서 지옥에 보낸 것이 아니라, 안 믿어서 천국에 갈 기회를 잃은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정말 진지하고 심각하게 사람들이 그 죄의 상태와 결과를 직면하게 해



회복하라
노진준 | 지혜의샘 | 248쪽

수한 믿음을 지키기 어려웠던' 이 시대의 '에베소'에 사는 많은 성도들을 향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만, 삶이 힘들고 피곤하고 아픈 건 우리가 에베소에 살기 때문"이라며 "많은 어려움을 당하지만,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처럼 낙심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권면한다.

노진준 목사는 타우슨대학을 졸업하고 웨스트민스터신학교에서 목회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이후 이 학교에서 변증학으로 박사 과정을 공부하다 볼티모어 갈보리장로교회를 거쳐 현재 한길교회를 담임하고 있다.

한편, 그의 설교 동영상은 유튜브에서도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이대웅 기자

CD, DVD 가을 할인행사 10월 31일 까지

믿음의 기업 탐미디어에서 귀 교회의 미디어사역을 위해 더욱 헌신하고자 가을의 문턱에서 **할인행사**를 준비하였습니다.



■ 전도용 설교시디 프린팅 \$ 0.25



■ 강해설교, 시리즈 설교 및 신학교 세미나용 오디오북 제작



■ 찬양시디 앨범 (개인음반, 성가대, 찬양팀) 1set \$1.25



■ 음악회 패키지 !!!
(모든 것을 한곳에서 해결하세요.)
(초청장, 티켓, 팸플렛, 포스터, 배너, 플레이어, 시디앨범)

■ 카세트, 비디오 테이프를
CD, DVD로 변환해 드립니다.



Blank CD
\$ 0.14



Blank DVD
\$ 0.17

★ 배너 및 각종 사인, 인쇄 등 교회 미디어 사역 전반에 관하여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TOPMEDIAUSA.COM • Call : 323.265.0244 • 3170 East 11th St. LA, CA 90023

스캇 모로우의 〈선교학 사전〉 한국어로 번역 출간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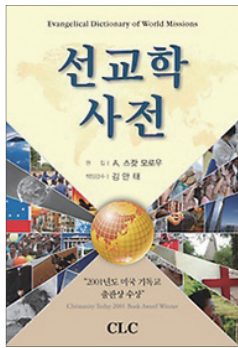
“선교의 A to Z를 한 권에!” 복음주의 관점의 선교를 말한다

“전 세계의 많은 지도자들은 한국 교회가 왜 그렇게 급속도로 성장하였는지에 관하여 종종 질문을 한다. 여기에는 역사적이고 영적 원동력이란 크게 두 가지 원인이 있다.”

기독교문서선교회(CLC)에서 최근 발간된 〈선교학 사전(원제: Evangelical Dictionary of World Missions)〉중 ‘대한민국’에 대한 설명의 일부다. 이 사전에서 언급하는 ‘영적 원동력’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성령이 충만하고 자기 몸을 아끼지 않는 목회자들에 의한 지역 교회의 강점. 둘째, 매일의 새벽기도회와 철야기도회 등 기도에 대한 강력한 헌신과 강조. 셋째, 지역 교회에 조직화된 일반 대중적 복음전도 운동. 넷째, 잘 조직된 소그룹 성경공부 모임. 다섯째, 여러 신학교의 풍부한

기독교 사역자들 배출. 여섯째, 계속 증가하는 타문화 선교사를 배출. 일곱째, 십일조에 대한 성실한 정치의식과 교회를 위한 헌신적 봉사. 여덟째, 기독교 신앙을 혁신적으로 토착화시켜 표현한 점 등이다.

이 책은 〈20세기 기독교 명사전〉 부주필을 맡았던 휘튼대학 선교와 문화학 교수인 A. 스캇 모로우(A. Scott Moreau), 트리니티신학교 종교철학과 선교학 부교수인 해롤드 네틀랜드(Harold Netland), 폴라신학교 선교성경신학 교수인 찰스 벤엔겐(Charles Van Engen) 등 3인이 330명 선교지도자들의 글을 편집한 책으로 2001년 크리스체니티투데이가 선정하는 기독교 출판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위에 나온 것처럼 한국에 관한 내용도 많으며 박기호



선교학 사전 | 스캇 모로우 외
CLC | 1,840쪽

교수(폴라신학교)·노봉린 교수(하와이국제신학대학) 등 한국인 선교학자의 글도 찾아 볼 수 있다.

〈선교학 사전〉은 기고자들이 선교이론과 전략, 선교의 실제적 방법과 지침, 선교의 역사, 선교기구와

활동, 선교사들의 삶과 사역, 각 나라의 지리와 문화 환경, 현대 선교의 이슈 등 다양한 주제들에 대해 정의하고 있다. 선교 이론과 실재를 동시에 추구하고 있으며, 선교 전문가나 목회자, 선교 관심자 등에게 두루 유익하다. 이 책의 편집자들은 서문에서 “〈선교학 사전〉은 서로 다른 교단적 관점과 견해에 조화를 이루면서도 성경의 권위와 영감에 대한 강한 확신을 기반으로, 하나님에 교회에 위임한 사역인 선교 전반에 대해 읽기 쉽게 제작됐다”며 “이 사전은 복음주의 선교에 대한 사전이 아니라 복음주의 ‘관점에서’ 본 선교학 사전이고, 뚜렷한 복음주의적 입장을 기반으로 선교사역의 주제들을 종합적으로 다룬 단행본”이라고 설명했다.



김만태 교수

무려 1840쪽에 달하는 이 책의 감수와 공동 번역을 맡은 이는 바로 베데스다대학교의 김만태 교수다. 김 교수는 그동안 ‘선교사의 생활과 사역’, ‘타문화 사역과 교육’, ‘타문화 사역과 리더십(이상 CLC)’ 등 선교와 관련된 다수의 책을 번역했으며 스리랑카 선교사 경험을 토대로 ‘스리랑카 여자 성년식(The Puberty Ritual in Sri Lanka)’이란 영문 서적을 저술해 큰 화제를 불러 일으키기도 했다. 이 책은 피터랭 출판사를 통해 미국, 영국, 독일, 스위스 등 6개국에서 동시 출간됐다. 이대웅 기자

기독교의 핵심 = 하나님의 선하심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했다
김형익 | 생명의말씀사 | 280쪽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했다〉는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대명제를 토대로 다시 써내려간 ‘4영리’라 할 수 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성경에 등장하는 개념일 뿐, 우리의 실제 삶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생각이 ‘오해’임을 저자는 증거하고 있다.

저자는 이 오해의 문제를 첫 문장부터 파고든다. “하나님께서 오해를 받고 계신다. 그것도 심각하게.” 이러한 오해는 성경과 교리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다. ‘기독교는 어려운 신 안 된다’는 인식이 팽배해 있어, 성도들은 상향도 하향도 아닌 ‘사향(死向)’평준화되고 있다. 성경과 교리에 대한 무지는 ‘구원’을 너무나 쉽고 당연한 것으로 만들었고, 결국 ‘복음’에 대한 무지와 무감각으로 이어져 오늘날 교회의 타락으로 이어졌다.

기독교를 ‘온갖 의무의 목록’ 줌으로 여기는 오해는 더욱 심각하다. 지옥에 갈까 두려워 하나님과 교회를 떠나지 못하는 신앙생활엔 자유함도 기쁨도 없기 때문. 그리고 예배나 헌금, 헌신과 봉사 등으로 ‘하나님을 감동시켜야 한다’는 부담만 늘어난다. 이런 신앙생활은 정상적이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과도 무관하다. 저자는 이렇게 오해되고 축소된 하나님이야말로 ‘만들어진 신’이자 ‘우상’이라고 질타한다.

그렇다면 오해를 벗어나,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를 찾을 때이다. 수많은 성도들이 계속되는 고통과 악의 문제와 ‘하나님의 선하심’ 사이에서 신앙의 균열을 일으키고 있는데, 이 둘은 어느 지점에서 만날 수 있는가? 저자는 해결을 위해 우리의 출발점인 ‘천지창조’로 거슬러 올라간다. 창세 전, 성부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서로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계셨다(요 17:1-5, 잠 8:30-31). 그 완벽한 교제를 통해 하나님은 충만한 기쁨과 행복을 누리고 계셨다는 것.

세상을 창조하신 이유도 여기서 찾아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환경과 조건을 완벽히 조성하신 후, 6일째 ‘창조의 꽃’인 인간을 마지막에 만들어 동산에 거하게 하셨다. 에덴은 그 이름부터 ‘기쁨·환희’를 뜻했다. 그리고 최초의 인간 아담이 외로움을 미처 느끼기도 전에 배필

을 허락하셨다. 결국 하나님은 인간에게 ‘기쁨’을 주시고, 인간이 기쁨으로 드리는 찬송과 예배를 통해 영광을 받으신다.

천지창조의 목적은 결국 교리와 신조에 나온대로 ‘하나님의 영광’이지만, 이 영광은 당신만의 것이 아니라 인간의 기쁨을 통해 현실화되는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최고 사명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기쁨으로 선을 베푸시는 것이 된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면’ 된다. 기독교는 다른 종교들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의 핵심은 하나님의 선하심이고, 이처럼 선하신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단고 사는 일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처사가 된다.

그렇게 은혜와 사랑을 입은 사람들이라면, 결코 이 ‘선하신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여기서 ‘죄’에 대한 정의가 나온다. 즉 하나님의 각종 명령을 범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언제나 자신에게 최상의 것을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의심하는 것이다. 결국 죄는 ‘불신’이고 ‘영적 독립선언’이다. ‘나에게 언제나 최상의 것만을 공급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을 최고로 모독하는 적극적 행위가 된다.

그래도 우리에게 풀리지 않는 숙

제가 있다.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어떻게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믿어도 ‘선하심’은 믿지 못하는 것 아닌가? 저자는 여기서 ‘심자가’를 꺼낸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 진노하시는 분이시나,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화목제물로 희생하심으로써 모든 죄를 심판하셨다는 것이다. 이로써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사랑하심이 성취됐다. 하나님은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택한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심을 심자가를 통해 확증하셨다.

십자가에서 죄를 씻음 받았어도, 우리의 ‘고난’은 여전히 실재한다. 저자는 이에 대해 “이런 고난조차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영광”이라고 주장한다. 저자는 하나님을 믿으면 더 이상 고난을 받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지 않는다. 도리어 기독교 신앙의 역설은 ‘고난이 주는 복’이라고 말한다. 욥과 아브라함, 요셉과 다윗, 예수님과 바울처럼 성경 인물들도 많은 고난을 당했다. 그러

나 무의미하지 않았다. 신약성경이 말하는 기쁨은 대부분 고난을 통한 복이었다.

“하나님께서서는 고난을 통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일을 행하신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받는 고난을 결코 낭비하시지 않는다. 당신이 만일 그리스도인으로서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고난과 관련해 생각해야 할 문제일지 모른다. 이런 깨달음은 대개 모든 고난이 지난 후 알게 된다.” 또한 그리스도인의 고난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믿음을 믿어주시는 영광스러운 일이자 특권이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는 수단이기도 하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일어나는 모든 고난은 영광스럽다.

이후 저자는 믿음이란 무엇인지,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장차 올 하나님 나라를 향한 우리의 소명은 무엇인지 등을 풀어놓았다. 책에서 소개하는 참고도서 목록도 찾아 읽어볼 만하다.

이대웅 기자

최첨단 3D 전신 스캔 검사

다나병원의 3D 전신 스캔 종합검사는 신체내 투입이나 통증없이 신속·정확하며 과학적인 방법으로 뇌, 심장, 혈관, 간, 위, 척추등 전신의건강 상태 뿐만 아니라 위험 요소들을 미리 측정하여 예방도 가능하게 하는, 일찍이 경험하지 못한 전신기능의검사를 합니다.

유전자 생약치료 200여개의 유전자를 분석하여 질병위험과 전반적인 건강상태 상담, BAM(bio active molecule;생리활성물질)으로 치료를 합니다.

다나병원 다나병원은 Well-Being과 Aging Care를 목표로 통합의학을 지향합니다. 621 S.Virgil Ave. #252, Los Angeles, CA 90005/ T.213.487.0691

입으면 허리문제가 해결되는 희한한 옷!!

너무 쉬운「NB 코르셋의 원리」를 알면 통증의 원인을 쉽게 고칠 수 있습니다. 「NB 코르셋」은 내 몸을 멋진 틀(NB 코르셋 깁스)에 넣어 **자연 치유력**을 이용한 과학과 지혜로 미와 건강을 만들어 내는 **결작품**입니다.



NB 코르셋의 특징

1. 24시간 입어도 갑갑하지 않고 편안함
2. 입자마자 자세가 달라짐(교정)
3. 입자마자 혈액순환이 달라짐(통증완화)
4. 특수 공법으로 수축되지 않고 인체에 완벽한 섬유와 세계 특허 이중지퍼 사용. 한국 **식약처**에 의로기기로 등록된 **교정 코르셋**

허리교정을 위한 남성용도 있습니다.

NB 코르셋이 필요하신 분

- >> **디스크환자**
좌골신경통 허리통증 척추측만증 교통사고
- >> **각종 질환**
요실금 증풍 관절염 손발 저림 만성피로
- >> **체형교정**
골반 틀어진 분 허리 굽으신 분 O형다리 거북이목
- >> **미용효과**
목주름 많은 분 얼굴비대칭 복부비만 부정교합

쓰러진 토마토를 세우는 것은 **버팀목**입니다.

의사가 척추를 바르게 세울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깁스를 하지 않고는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버팀목(기립근)이 약해서 제대로 지탱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NB 코르셋」은 늘어지지 않는 특수 천으로 깁스를 대신하고 코르셋 속의 10개의 버팀목이 약한 근육을 대신하여 골반과 척추와 경추를 바르게 교정해줍니다.



NB CORSET Tel: 323.316.6815

‘기적의 섬유’로 만든 「음이온 건강이불」발이 불편한 분은 「NB 메디칼 슈즈」, 가장 강한 「SJP 슈퍼 유산균 건강제품 전문

무료 광고지참시 방문하신 모든분께

*자세 사진 촬영 *현미경 혈행 검사 *체질 검사

CHRISTIAN BUSINESS

Classified AD



중고차 황제 김기형

Family 자동차 \$중고차 최고가 매입\$

새차 맞춤 리스 중고차 매매 “기본 \$700 더 드립니다.”

213.453.5900 714.743.1000

933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6 familyauto.us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한국에서 미국으로

송금 전문

(213) 342-7776 월서+킹슬리



재미과학자 승문기 박사는 UCLA와 대학 박사 40여년간 연구 개발한 PRO-Z는 미국FDA에 치료 약으로 인정되어 주성분인 아연과 크롬으로 영양분에서 획기적인 연구개발로 임상평가 받고 있다. 특히 미국의 제1군인 병원에서 임상실험 결과 최상의 6개월복용시체중에 탁월한 효과로 개선됨을 확인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PRO-Z USA
미국 판매처

213.434.1170

621 S. Virgil Ave, Suite 260 Los Angeles CA 90005

타주 대리점 모집
당뇨병 가능 개선제
PRO-Z

지긋지긋한 당뇨병 탈출

당뇨병을 앓고 있던 당뇨병이 이제는 치료 가능합니다. 새로운 당뇨병 개선제 PRO-Z를 6개월만 복용하시면 지긋지긋한 당뇨병에서 해방되어 정상인과 같은 건강한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여 줍니다.



1병 \$76
3병 \$200
6병 \$372

법률 문제로 답답한 가슴을!!!

공인 법무사(CERTIFIED L.D.A & PARALEGAL #227 / BOND 5785BF1090)인 제이 송 시원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변호사한테 가시기전에 “꼭 먼저” 만나 보아야 할 사람입니다!

퇴거, 파산, 이혼, 이민, 민사소송

기타 각종 법정 서류 작성

714-349-8934 (한국말) 잔 안

714-667-0728 (영어)
2112 N. MAIN ST. #290, SANTA ANA

213-487-0728 (영어)
1543 W. OLYMPIC BL. #422, LA

TONERSUM

칼라레이저 프린터 리스(임대) \$49.99/month

선착순 5명



\$69.99 \$149.99 (SAVE: \$80.00 (53%))

MULTIFUNCTION LASER PRINTER

레이저 프린터(칼라흑백) Blow Out Sale!!

삼성토너 스페셜 리스트

HP, Brother Big Sale Tel. (626) 802-5712

각종 조립식 선반 전문



(323)855-5687 / (213)200-3050 / (213)623-5491
646 S. San Pedro St. Los Angeles, CA 90014 Downtown LA (Between 6th, 7th St)

K.T. 택배 T. 213-365-8588

말도 안되는 가격 \$ 6.99 초고속 픽업 & 배송!!

전화 한통화로 당일무료 픽업!

무료포장 (박스, 충격흡수제 무료)

최저 가격!! 인터넷 사업자 대박우대

소량화물 4개중 1개 공짜!

"가격은 낮추고 서비스는 최고로 모시겠습니다"

법무사 사무소 법적 해결

소장 Kenny Oh (323)377-5702 ko7law@gmail.com

변역 (학술/사업/개인) | 법정통역, 소송/방어서류

민사법 의도/과실/사기/부당 행위 피해, 입주자분쟁(소송/방어)

점근 금지 법원 명령

계약법 작성/분석/분쟁/수금문제 가정법 약식/일방이혼

1543 W. Olympic Bl. #580 LA. CA 90015 Law Office of R. Song

모/든/문/제/체/류/신/분/과/무/관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

귀국 · 시내 · 타주이사 · 차량운송

한국식 포장이사도 해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무료전화 877-580-2424 310-538-3333

18118 S. Broadway st #B Gardena, CA90248 www.easy2424.com

손바느질 양복의 명가

골드핑거

T.213.386.5858

직접재단/직접재봉/남녀맞춤/명품 옷수선

975 S.Vermont Ave. #102, Los Angeles, CA 90006

Master Tailor
김병호

온돌마루

UL마크 인증제품 사용
NRTL(미국 전기 안전 규격제품).

획기적인 절전제품/ 전자파제로

안방 아랫목, 거실, 기도실, 유아방, 잠실방 설치중

피코 건축자재 (피코+카탈리나) 213)256-4884

A-1 정비 오일 교환

엔진 & 미션 전문

트랜스미션 타이밍벨트 브레이크 튜업정비

10% 할인

Tel. 323.737.2922 Trans (323)731-0613 Engine (323)752-2971

헤어컷 특강

미용을 배워 신고하는데 사용하실 분들을 위해 특강을 엽니다.

대상: 전도와 신고를 위해 사용하실 분 (현재프로 미용인도OK)

회비: 월 \$10

강사경력: 전 국가대표 선수권자

문의: 213.392.2323

한방생리대 도.소매

G. Together Inc.

인삼생리대 익모초생리대 한방생리대

Edward Kim 김인태, CEO

213-392-2323 (Korean) 213-500-5896 (English)

3544 W. 3rd St, Los Angeles, CA 90020 / G_Together_Inc@yahoo.com

베데스다 의료 봉사센터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의료혜택을

못받는 분들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치과와 양, 한방등의 진료의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문의전화 213-384-7078



쇼스피드 다이어트

치아미백

잇몸 시큰거림 풍치예방

1주에 7파운드~25파운드 감량

1주분 다이어트 약 \$60 부터...

하머니크림 (습윤크림)

임신 중 튼살 방지

건선으로 인한 붉은 주름(얼굴,목)

트고 갈라진 피부 보습(발 뒷꿈치)

치질(항문하혈, 통증)

독소제거

갑상선, 당뇨병, 정력제

불임증(자궁축, 하혈)

우울증

관절염

원형탈모

구연산 캡슐

배배는 속변약

몸 전체 부종

빠지는 약

한달 \$50

영선한의원

Young Sun
Acupuncture
& Herbs Clinic

한국어: 213.380.7800

영어: 213.380.6868

각종보험취급

(오바마 케어 포함)

LA MEDICAL CENTER 3663 W 6th St. #308

Los Angeles CA 90020(6가와 아드모어)

영업시간: 월~금:10시~5시/ 토 10시~2시



원현대 칼슨



이번달 스페셜 리스 프로그램 이벤트

“2015년형 뉴 제네시스 입하”



Alex Shin

한인 Manager

2201 E. 223rd St., Carson, CA 90810

ashin@winhyundaicarson.com

Phon: 310.830.5100 (Ext 653)

Cell : 562.900.2399

Kakao ID: alexshin878

현대차를 원하시는 당신께 최고의 가격을 제공하겠습니다!!

www.winhyundaicarson.com

한인타운에서 15분에서 20분거리

브로커 환영

Genesis 2015



ALL NEW 2015 GENESIS SEDAN

Genesis 2014 3.8



ALL IN STOCK @ \$36,120

Lease for \$249

PLUS TAX @ 36 MONTHS

36 months closed end lease on above average

approved credit. \$2500 down = \$2500 lease cash. \$500 military. \$400 college rebate. \$0 credit in excess of \$1,000 miles per year.

Total Drive off \$10,399 without \$1,000 lease cash.

Equus 2014 signature



ALL IN STOCK @ \$61,920

Lease for \$399

PLUS TAX @ 36 MONTHS

36 months closed end lease on above average

approved credit. \$2500 down = \$2500 lease cash. \$500 military. \$400 college rebate. \$0 credit in excess of \$1,000 miles per year.

Total Drive off \$10,399 without \$1,000 lease cash.



유학생, 상사 주재원 도와드립니다. Bad Credit, No Credit 연락주세요. 미 서부지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딜러

All advertised prices exclude government fees and taxes, any finance charges, any electronic filing charge, and dealer document processing charge, and any emission testing charge. All vehicles are at Carson location. Offers available through Jan. 27, 2014

“주님 앞에서 내려놓음과 비움 늘 실천하셨다”

한국교회 산 증인 방지일 목사 별세



한국교회 역사의 산 증인이자 큰 어른인 방지일 목사의 별세 소식에 조문객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한국교회의 산 증인이자 국내 최고령 목회자였던 방지일 목사(영등포교회 원로)가 10일 오전 0시 20분 향년 103세로 소천했다. 빈소는 서울 신촌 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다.

故 방 목사는 1911년 평북 선천에서 태어나 평양신학교를 졸업하고 1937년에 목사안수를 받았다. 그 후 21년간 예정통합 총회 파송 중국 선교사로 봉직했으며, 1957년 산둥 지방에서 돌아온 후 영등포교회 담임을 맡고 1971년 총회장을 역임했다. 1979년 원로목사로 추대되었으며, 지난 1998년에는 국민훈장모란장을 받았다. 그는 평양대부흥 운동의 중심지였던 장대현교회에서 전도사로 김전주 목사와 사역하기도 했다.

그의 별세 소식에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한영훈 목사)은 10일 성명을 통해故 방지일 목사를 애도했다. 한국교회는 “한국교회의 존경받는 큰 어른을 잃었다는 슬픔과 애절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며 “특히 방 목사님은 본회 창립 이후 첫 명예회장으로 추대되셔서 한국교회의 나아갈 바른 방향을 제시하시는 데 앞장서셨다”고 밝혔다.

한국교회연론회(대표 김승동 목사)도 10일故 방 목사 소천에 대해 논평을 발표했다. 교회연론회는 ‘목회자의 귀감, 고 방지일 목사 한 사람의 부르심 받아’라는 제하의 논평에서 “방 목사님의 삶에 대한 평가는 복음에 대한 열정, 주님 앞에서의 ‘내려놓음’과 ‘비움’의 삶을 늘 실천하셨다는 것”이라며 “또한 소통에 힘쓰셨고, 한국교회에 대한 애정 어린 가르침과 충고도 아끼지 않으셨던 분”이라고 했다.

교회연론회는 “고 방지일 목사님의 이러한 삶은 이 시대 모든 목회자와 성도들의 귀감이 되고 있다”며 “한국교회는 또 한 분의 큰 어른을 떠나보냈다”고 안타까워했다.

김명혁 목사는 한국복음주의협의회 행사 마지막 시간에故 방지일 목사의 소천 소식을 전하면서 “그 동안 누구보다 바쁘게 세계를 안방처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셨고, 선교사들의 존경을 받으셨다”며 “선배님들이 다 떠나셔서 너무 허전한데, 마지막 한 분이 가셨다”고 안타까워했다.

다일공동체 대표 최일도 목사도 “목사님을 더 이상 뵈 수 없다 생각하니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고 땅이 꺼지는 것 같았다”며 10일 소천한故 방지일 목사를 회고했다.

최 목사는 직접 쓴 애도의 글을 통해 “진정한 목자를 저 천국으로 보내드리는 저희 어린 양들의 마음은 너무도 아프고 쓰리고 허전하기만 하다”면서 “한국교회의 자존심인 방지일 목사님을 천국에 보내놓고 아비 없는 자식처럼 목자 없는 양떼처럼 방황할 한국교회 앞날이 더욱 더 걱정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교회를 향한 따듯한 책망과 카랑카랑한 목소리로 생명의 말씀을 울곧게 전해주시던 그 음성이 귓가에 쟁쟁하건만, 목사님, 목사님, 우리 목사님은 어떻게 우리들을 남겨두고 이렇게 가실 수가 있습니까?”라고 고인을 그리워했다.

예장 통합총회 정영택 총회장은 특히 “마치 고향에 계신 제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것 같다”며 “총회장을 하는 동안 혹 어려운 일이 있으면 가서 기도도 받고 싶었는데, 이렇게 소천하셔서 안타깝다. 너무나

습이 아프다”고 울먹였다. 그는 “발인하기 전까지 저를 비롯한 총회 임원들이 돌아가며 가능한 한 오래 빈소를 지키겠다”고 전하기도 했다.

고인의 발인예배는 14일 종로 한국교회백주년기념관에서 예장 통합총회가 주관하는 한국기독교교회장으로 치러졌고 장지는 춘천 선산으로 결정됐다.

이대웅 기자



한국기독교교회장으로 장례식이 끝난 후 하관예배를 위해 고인의 시신이 운구되고 있다.

“목사님 같은 분 더 많아져야 할 때 소천하셔서 안타깝다”

故 방지일 목사 빈소에 조문 이어져
조용기, 김삼환, 립인식, 이철신 목사 등 방문

故 방지일 목사(영등포교회 원로)의 빈소가 마련된 서울 신촌 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10일 조용기(여의도순복음교회 원로)·김삼환(명성교회 담임)·립인식(노량진교회 원로)·이광선(한국외환선교회 상임회장)·이철신(영락교회 담임) 목사 등 많은 교계 지도자들이 빈소를 찾아 조문하고 유족들을 위로했다.

조문객들은 한 목소리로 한국교회 역사의 증인이자 신앙의 사표였던故 방지일 목사의 소천을 안타까워했다. 이철신 목사는 “방 목사님과 같은 분들이 더 많아져야 할 시기인데, 이렇게 소천하셔서 안타깝다. 귀한 분이 가셨다”고 했고, 김삼환 목사도 “어려운 시기에 돌아가셔서 마음이 아프다”고 했다.

영등포교회 한 관계자는 고인에 대해 “소천하시기 전날(9일)도 지인들과 점심을 함께하시는 등 평소와 크게 다른 모습이었다”며 “그러다 그날 오후 몸에 이상이 와 병원에 입원하셨고, 결국 자정을 조금 넘겨 소천하셨다”고 전했다.

빈소를 지키고 있는 영등포교회의 한 장로는 기자와의 인터뷰 중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그는 “초등학교 때부터 방 목사님을 알고 지냈다”며 “교인들 이름 하나하나를 다

기억하고 기도해주셨던 분이셨다. 특히 새벽마다 교회 청년들을 부르시며 기도하시던 모습이 눈에 선하다”고 고인을 회고했다.

아울러 그는 “방 목사님은 영등포교회 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가 존경했던, 신앙의 스승이셨다”며 “이제 남은 제자들과 후배들이 그분의 신앙을 이어받아 한국교회를 다시금 일으켜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교회연합은 공동회장과 법인이사 등 30여 명이 13일 오후故 방지일 목사 빈소를 찾아 조문하고 유족들과 함께 위로예배를 드리기도 했다.故 방 목사는 한교연 창립 이후 명예회장으로 추대됐으며, 지난해 하와이 이민 110주년 행사를 비롯, 신년하례회 등 최근까지 한교연의 국내외 행사에 빠짐없이 참석해 말씀을 전해왔다.

김진영 기자

故 방지일 목사 말말말

故 방지일 목사는 100년 남짓한 세월 동안 주옥과 같은 명언들을 무수히 남겼다. 그의 언어는 때론 투박하지만 언제나 깊은 묵상이 담겨 있었다. 그를 하늘나라로 보내는 자리에서 목회자들은 모두 방 목사가 남겨 온 명언들을 회자하며 은혜를 나누기도 했다. 다음은 기념사업회가 이날 꼽은 방 목사의 명언들.

- “기도는 죄 찾는 현미경이다.”
- “신앙은 투항, 곧 무장해제다.”
- “달아질지언정 녹슬지 않겠다.”
- “격산덕해(格山德海), 인격을 산같이 덕을 바다같이”
- “교회는 핏소리를 중계하는 중계소이다.”
- “오시는 주님을 나도 마중나가 직선상에서 만나자.”
- “뉘이지 않은 제물은 튀어나오기 쉽다.”
- “먼저 죽어야만 피의 수표를 발행할 수 있다.”
- “예수 없는 평화란 스스로 속는 것이다.”
- “골방은 영각을 밝게 하는 진료소이다.”
- “물약 향주머니를 지니고 십자가의 향기를 맡으며 살자.”

추나

수술 없이
척추 치료

장수한의원

- 척추 교정
- 골반 교정
- 자세 교정
- 근육 교정

- 한방 특진 안내 >> 침, 뜸, 부항, 추나
- 두통, 목, 오십견, 요통, 관절염, 좌골신경, 신경통, 중풍, 위장병, 간장병, 심장병, 신경쇠약, 신경통, 고혈압, 부인병, 갱년기 장애, 어린이 보약, 산전산후 보약
- 각종 보험 환영 직장상해보험
교통사고 및 스포츠사고 전문
HMO (이지초이스)
통증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분

- 디스크 치료 후에도 계속 통증으로 고생하시는 분
- 팔이 뻣기고 저리며 통증이 있거나 감각이 없으신 분
- 목을 돌리기 힘들고 통증이 있으며 손가락에 감각이 없으신 분
- 어깨 통증으로 팔을 들어 올리기 힘든 분
- 잠을 자고 난 후 갑자기 목을 움직이지 못하며 통증이 심하신 분
- 갑자기 허리를 움직이지 못한 정도로 통증이 심하신 분
- 지긋지긋한 허리통증과 만성 디스크로 뼈뿔어진 척추
- 엉치 및 다리가 뻣기고 저리며 통증이 있으신 분
- 물건을 들다가 삔끗하여 허리가 아프신 분
- 그 외 척추로 인한 모든 질병 걱정 뚫!

- 통증 클리닉 : 중풍마비, 관절염, 두통, 신경통, 요통, 디스크, 허리, 목
성 클리닉 : (남성)전립선, 발기부전, 조루, 정력저하, (여성)불감증
한방 내과 : 감기, 천식, 고혈압, 당뇨, 위장병, 갑상성 질환, 변비, 알러지, 피부병, 비염
한방 부인과 : 불임증, 갱년기 장애, 월경불순, 산전 산후 보약
한방 정신과 : 치매 및 예방, 우울증, 불면증, 각종 스트레스 질병
한방 소아과 : 허약체질, 소아경기, 성장탈 및 보약 기타 : 비만치료
- 이런분께
- ▶이곳 저곳을 다녀 봤지만 효과 못본 분
 - ▶지긋지긋한 고질병을 앓고 싶은 분
 - ▶본인은 고통스럽고 불편하나 병원을 가도 병명이 나오지 않는 분

A Line in the Sand 11.11.2014

캘리포니아와 미국의 영적 부흥과 대각성을 위한

다민족 연합기도회

HONDA Center

1:00 PM – 9:00 PM

2695 E. Katella Ave., Anaheim, CA 92806

www.aLineintheSandConference.com

부흥만이 살길입니다.

이 나라가 점점 하나님과 말씀을 떠나고 있습니다.

지금은 위기에 처한 이 나라를 위해 비상하게 회개하여 부르짖을 때입니다.

미국사에 보면 국가적 위기 때마다 교회들이 역대하 7:14 약속을 붙들고 회개하여 하나님의 긍휼을 구했고
그 때마다 하나님은 부흥을 보내 주셔서 나라를 새롭게 해 주셨습니다. 한인크리스천들이여,
모두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모세의 심장으로 마음을 찢으며 이 땅의 부흥을 위해 눈물로 간구합시다.

한인 인도 기도시간: 11월 11일 (화) 오후 6:30-8:30

주 최: A Line in the Sand (11/11/14 기도회 · 장소: 애나하임 혼다센터)

한인주최: 남가주교회협의회, OC교회협의회, 남가주목사회, OC목사회, 남가주 각지역 교협
또는 목사회, 미주성시화운동본부, KCCC, 미주복음방송, 남가주 청년사역자연합

한인주관: 미주한인기독교총연합회(미기총), JAMA

문 의: 323-933-4055, 626-372-5151, 714-336-4378



****대회본부 사정으로 다민족 기도대회 시작 시간이 10시에서 오후 1시로 최종확정되었습니다.**

후원: 크리스천헤럴드, 크리스천위클리, 미주크리스천신문, 크리스천비전, 크리스천투데이, 기독교일보
CGN TV, CTS, 미주복음방송, CBS 기독교 FM 방송, 미주기독교방송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 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요엘 2:28



HONDA
Center